장편실화

인생렬차

인 훈

금성청년출판사
주체101(2012)

붓을 들며

들어 붓이여
력사의 인물들을 찾아
내 너와 함께
몇날, 몇백밤

해와 달의 년륜도
세월의 이끼도
운명을 맞받아 몸부림친 자국
다는 지울수 없었나니

그 자욱자욱 찾으며
내 세상을 편답했더라
붓이여 너와 함께
잠못들며 모대기며

인류해방과 평화를 위해
쉬임없이 걸어온 인간
그 인생길을 더듬으며
오늘도 나의 붓은 밤을 패나니

내 세상에
진실만을 말하련다
이 가슴에 꽉 차고넘친
사랑과 열정의 분화구를 터쳐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들을 노래하련다

오, 력사와 진리앞에
언제나 성실한 한 인간의 손에
붓이여, 너 쥐여져있음을 명심하라!

저 자

차 례

서 장
촬영기에 비쳐진 모습

2007년 2월 15일 10시.

이 시각 사람들은 다 모르고있었다. 비슈와나스가 어제 오후 뉴델리로부터 어떤 비보를 받았는지, 그가 과연 어떤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섰는지…

다만 이자리에는 한없이 경건하고도 숭엄한 환희의 감정만이 흐르고있었다.

이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국제**김일성**상리사회가 결성되던 1990년대초부터 줄곧 고심해오던 비슈와나스였다. 그는 만수대의사당 넓은 홀에 모인 각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들을 둘러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하여 그는 감격에 젖어드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다.

《친애하는 세계의 벗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세계에서 가장 존엄높은 상인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해드리는 성대한 의식에 참가한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하는바입니다. …》

이렇게 서두를 떼는 비슈와나스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는듯싶었다.

그 모습을 촬영하는 나의 눈굽은 왜서인지 자꾸만 희뿌옇게 흐려왔다. 그리하여 나는 참가자들의 시선을 피하며 몇번이고 손수건을 눈에 가져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는 웬만해서는 촬영기를 손에 들지 않는다. 직업적인 기자들이

있기때문이다. 그들은 항시 우리보다 먼저 행사장을 차지하고 국내외의 모든 사변들을 정확히 세상에 보도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촬영기를 들고나왔다.

이것은 내가 단지 촬영애호가여서만이 아니였다.

오늘의 화폭만은 내가 직접 촬영하리라. 그리고 내 손으로 편집물을 만들어 인터네트망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리리라.

이것은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진정, 깊고깊은 그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내가 시대앞에, 력사앞에 스스로 걸머진 리성의 자각이였다.

그가 어제 오후 뉴델리로부터 받은 비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몇이 안되였다. 그중 한사람인 한찬두 역시 비슈와나스의 말을 통역하면서 여느때없이 감동과 흥분으로 떨고있는듯 하였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는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인류자주위업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각하께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하여드리는것을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적의무로, 최상의 영광으로 간주하면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국제**김일성**상을 정중히 수여하여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결정을 랑독하겠습니다.》

조선어로 통역하는 한찬두의 말을 받아 각 어종의 통역원들이 또한 자기가 맡은 대표단들에게 부지런히 그 나라 말로 통역하고 있었다. 참으로 5대륙이 다 모인 자리였다.

비슈와나스의 눈굽에도 감격의 눈물이 맺히는듯싶었다.

국제**김일성**상이 제정된 그 시각부터 제1번을 **김정일**장군님께 수여해드리는것은 그의 소망이자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념원이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부디 만류해오시였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는 해마다 그이께 거듭되는 요청을 드리였다. 그리하여 그때로부터 15년세월이 흐른 오늘에야 비로소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 이루어진것이였으니 참가자들모두의 가슴이 어찌 감격에 설레이지 않을수 있으랴.

언제나 첫자리는 인민에게, 인류에게 모든것을 양보하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장군님께 수여해드리는 국제**김일성**상은 제7번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엄숙한 목소리로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결정을 랑독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결정.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머지않아 인류공동의 명절인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탄생하신 2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

국제**김일성**상리사회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각하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해드리기로 결정한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 박사 비슈와나스
2007년 2월 1일. 뉴델리》

박수, 박수…

터져오르는 그 박수소리는 만수대의사당을 울리며 끝간데 없이 멀리멀리 메아리치는듯싶었다.

5대륙에서 온 진보적인사들의 뜨거운 열광속에 **김정일**장군님께 수여하여드리는 국제**김일성**상 상장과 금메달, 귀금속공예기념품을 비슈와나스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뒤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김정일장군님께 세계에서 가장 존엄높은 상인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해드린 커다란 기쁨을 안고 연단에 나선 오가미 겡이찌며 알바 챠베스…

국제**김일성**상리사회성원들인 그들모두의 얼굴마다엔 오랜 세월 품고있던 소망을 이룬 감격이 한껏 어려있었다.

얼마나 고대해온 이 순간인가.

각 나라 대표단들의 흥분된 모습을 둘러보는 비슈와나스는 자못 감개무량한 표정이다. 나의 촬영기렌즈에 가깝게 들어오는 그의 얼굴에 소망을 이룬 환희의 표정이 력력히 어리는것을 나는 볼수 있었다.

얼마나 뜨거운 인간인가, 얼마나 진실한 인간인가.

나의 귀전에는 그가 어제 오후 숙소에서 하던 말이 쟁쟁히 울리여왔다.

《당신들, 이 일을 말하면 두번다시 대상하지 않겠다.》

그때 우리는 오늘 행사를 두고 토론하고있었다. 그의 계획을 한참 듣고있는데 전화가 왔다. 한찬두가 전화를 들더니 뉴델리에서 맏아들이 걸어오는 전화라고 하면서 그에게 바꾸어주었다.

전화기에서는 함께 사는 그의 맏아들 안일 샤르마(1951년생)의 음성이 확성기를 틀어놓은것처럼 들리고있었다.

내용은 할머니가 금방 사망하였는데 빨리 오라는것이였다. 아들의 할머니이자 비슈와나스의 어머니인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할머니의 마지막에 대하여 전하였다.

《얘야, 네 아버지가 언제 오느냐?》

《이달 21일이면 옵니다.》

손자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속으로 날자를 세여보더니 《한주일!》 이렇게 내뱉고는 조용히 갔다는것이였다. 조용히 살아온 한생처럼 그는 갈 때에도 조용히 갔던것이다.

《알겠다.》

이렇게 대답하며 전화기를 천천히 놓는 비슈와나스는 굳어진듯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말이 없었다. 주름잡힌 그의 두눈굽에서 주먹같은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그앞에서 한찬두와 나도 굳어졌다.

우리는 그의 어머니 두르가데비(1902년생)를 잘 알고있었다. 자식을 위해, 자손을 위해 말없이 한생을 바친 녀인이였다. 참으로 그는 인자한 어머니, 현숙한 할머니였다.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그의 어머니는 어린시절부터 마음속에 새겨온 미였으며 사랑이였으며 삶이였다. 조용히 살았으나 그 어머니의 이름은 온 마을이, 온 구역이 다 알고있었다. 그만큼 그 어머니는 인디아에서는 보기드문 미덕의 소유자였다.

80고령의 비슈와나스도 어머니앞에서만은 어린애가 되여 집에 들어서면 하루일을 보고하고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고서야 자기 방

으로 가군 하였다.
이제는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되였다.
아, 어머니!
나를 젖먹여 키워주고 세상에 내세워준 어머니!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끌어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100살을 넘기고 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자신과 끝없이 말하고있었다.
이 순간 비슈와나스의 머리속에는 잊지 못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의 화폭들이 주마등같이 흘렀으리라.
언제까지 이어질듯싶은 그의 상념, 그의 심중의 독백을 나는 깨뜨릴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할바를 해야 했다. 빨리 그를 집으로 보내야 하는것이였다.
그는 7형제의 맏이였으며 6남매의 자식을 가진 아버지였으며 또한 줄기줄기 뻗어간 족보의 자손들 100여명을 거느린 샤르마(선조의 성)가문의 가장이였던것이다.
실로 그는 대가정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로서도 위풍이 당당하였다. 그 나이면 흔히 집안에 앉아 여생을 즐길 나이이다.
《리사장선생,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침묵을 깨뜨리며 우리가 하는 말이였다.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제**김일성**상리사회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대답이 없다.
그는 자기가 주관하여야 할 가정의 대사를 생각하고있었다. 또한 그는 응당 자기가 서있어야 할 시대의 위치를 자각하고있었다.
어느곳이 더 중요한가.
이윽하여 그는 아무말없이 전화기를 들더니 번호판을 누르는것이였다. 제꺽 안일 샤르마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는 뉴델리의 자기 집을 찾았던것이다.
《나다. 너희들끼리 장례를 치르도록 해라. 나는 나의 일정을 변경시킬수 없다.》
그다음 그는 몇마디 더 장례행사와 관련한 지시를 주고 전화

를 놓았다.

그의 결심은 이미 확고해진것이였다. 우리의 권고가 이제는 그에게 먹어들리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번 길을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국제**김일성**상을 **김정일**각하께 수여해드리려고 평양에 간다는것을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일을 잘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네가 올 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좋고 간다해도 그것은 때가 됐기때문에 가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주체의 길을 끝까지 지켜준 〈천사〉였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하고 돌아가면 나의 어머니도 기뻐하실것입니다.》

그는 하던 토론을 계속하자며 미리 말해둘것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입밖에 내면 다시는 우리와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것이였다.

우리의 가슴은 뭉클 젖어왔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당부를 멀리에서 심장으로 받아안았던것이다. 자식이 주체의 한길을 끝까지 갈것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속의 그 당부를!

이렇게 되여 오늘 행사는 비슈와나스의 주관하에 계획대로 성대히 진행되고있는것이였다.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을 사람들은 아직 다 모르고있었다.

비슈와나스의 태연자약하고도 침착한 모습이 촬영기의 렌즈에 비껴들수록 나의 가슴에는 만민이 따르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사는 민족의 한없는 긍지와 함께 인류의 이런 뜨거운 지향이 반드시 지구우에 자주위업의 승리를 안아오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이 더욱더 강렬하게 심어지는것이였다.

나의 촬영기에는 모든것이 비쳐지고있었다. 5대륙인사들의 활기찬 모습만이 아닌 그들의 가슴속 깊고깊은 사연까지 다 비쳐지고있었다.

비슈와나스!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는 그의 모습에는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있으면서도 다는 몰랐던 그의 마음속진정이 력력히 비껴흐르는듯싶었다. 그 모습은 내가 이미 아는 비슈와나스의 모습만이 아닌 더 크고 더 강렬한 거인의 영상으로 나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였다.

이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그의 인생행로가 화면처럼 흘러가고있었다.

과연 그의 인생렬차는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늘에로 치달아오르고 있는것인가?!

무슨 힘이 그를 움직여 80고개를 넘어선 오늘도 그는 모든것을 다 바쳐 주체의 한길만을 쉬임없이 걸어가고있는것인가?!

나도 그와 함께 걸으며 지나온 그의 발자취를 세상에 헤쳐보이려고 한다.

제 1 장
너는 어디로 가려니

사람들이여, 세계지도를 펼치고 대양들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새삼스럽게 생각되는 대양이 있으리라.

태평양과 대서양사이에 있는 인디아양!

한 나라의 국호가 그대로 하나의 대양의 이름으로 명명되여있는것이다.

지구우에 그런 대양은 이 하나뿐이다. 그렇듯 인디아는 넓고 넓은 나라인가.

아시아의 남부에 자리잡고있으면서 북부는 중국, 네팔, 부탄, 북서부는 파키스탄, 북동부는 먄마, 방글라데슈와 잇닿아있으며 그밖의 지역은 인디아양에 면해있는 반도의 나라 인디아!

세상사람들은 인디아를 가리켜 준대륙이라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령토가 넓고 인구수가 많은 나라라는 의미에 앞서 생활풍습, 기후풍토, 문화전통 등이 그 어느곳보다도 다종다양하기때문이리라.

그래서인지 세상에는 두 대륙을 차지하고있는 나라도 있고 인디아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있지 않는것이다.

다민족국가인 이 나라에는 언어와 풍습 및 생김새가 서로 다른 민족, 종족이 자그만치 세계의 나라수와 맞먹는 200여개나 살고있으니 충분히 그렇게 불리울만도 한것이다.

민족, 종족이 많은 그만큼 이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 및 사투리는 800종이나 된다. 영어를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의 언어들은 인디아 여러 언어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일정한 수의 단

어들이 들어갔을뿐 인디아의 언어들은 자기의 내적법칙에 따라 계속 발전하여왔다. 많은 현대인디아어들(벵갈어, 힌두어, 우르두어, 마라트어, 구자라티어 등)은 풍부한 문예작품들을 가지고있다.

기후차가 심한 이 나라에는 동식물분포 또한 다양하고 생활수준, 문화수준이 각이한 그만큼 빈부의 차이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것이다.

나라의 인구수는 오늘 13억에 이르렀고 수도에도 1 500여만의 사람들이 모여 붐비며 제나름의 각이한 생활을 펼치고있다.

비슈와나스는 자주 붐비는 이 도시를 떠나 북쪽방향으로 400키로메터정도 떨어져있는 고향마을을 찾군 한다.

그 마을이 바로 판도리비비마을이다.

그 마을은 단순히 그의 어린시절의 추억과 부모들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땅이 아니라 샤르마가문이 대를 이어 물려오는 광활한 령지가 펼쳐져있는 가문의 보다 큰 집이였다.

숱한 후손들이 바로 그 대지에 생의 명줄을 걸고 때로는 서로 웃고 때로는 서로 다투며 변덕많은 이 세상을 걸어가고있는것이였다. 서로 손을 잡든 싸우든 어쨌든 가문의 그 령지는 오늘도 떠나지 않고 옹기종기 몰켜선 후손들이 하나같이 매달려있는 생의 토양이였다.

세습적으로 근 200년동안이나 대대로 물려오는 그 땅은 무려 500정보에 달하였다. 그 땅을 손에 넣은 증조부는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되였고 이제는 갈래갈래 늘어난 그 후손들이 모다붙어 땅을 관리하고있었다.

흐르는 세월은 그들속에서 빈번히 의견상이를 일으키군 하였다. 가물이 들어 흉작이 들 때면 더욱 그러하였다. 저마다 자기 몫을 달라느니 땅을 팔아 돈을 나누어가지자느니…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할수 없는 땅이였다.

가부장적가족제도의 법도에는 선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자손들이 재산을 가르지 못하게 되여있는것이였다. 앞으로 세대교체가 몇번 더 이루어지는 그때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비슈와나스의 세대들이 살아있는 한 조상의 유언을 어길 권리가 감

히 누구에게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있었다.

이 땅을 500년, 아니 1000년이후에도 절대로 팔지 말라! 그리고 노나가지지도 말라! 노나가지기 시작하면 다 쪼각나고 마지막에는 없어지고만다!

이것이 증조부의 재산상속유언이였다. 샤르마가문에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내려오는 이 법을 아직은 누구도 선뜻 허물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가문을 대대로 보존하라고 그런 유언을 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상의 그 어명을 과연 흐르는 세월이 언제까지나 지켜주려는지.

증조부는 가정의 화목과 단결을 위해 그런 유언을 남기였으련만 왜서인지 세월이 갈수록 가문에는 그 땅으로 하여 금이 가고있는것이였다.

흐르는 세월이 점점 비슈와나스의 가슴에 육감적으로 던져주는것은 세습적으로 물려받은 그 땅이 언제가서는 몫몫으로 나누어지게 될것이라는 예감이였다. 세대가 바뀌고바뀌면서 가문의 보다 큰 집은 족보에나 남아있겠는지 현실적으로는 생활단위로 쪼개져나갈것이라는 예감이 강했다.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난지도 벌써 몇세기가 흘러가지 않았던가.

19세기 전반기는 18세기말에 있은 프랑스의 정치혁명후 한쪽에서는 부르죠아제도가 수립되고 산업혁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낳고있었으며 다른쪽에서는 낡은 봉건적, 가부장적관계들이 새로운 부르죠아적관계에 의하여 허물어지고있던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마련된 가문의 광활한 이 령지가 21세기가 흘러가는 오늘까지도 가부장적세습으로 보존되고있으니 그 땅, 그 가문이 결코 조용할리가 없는것이다.

현대문명의 눈부신 광채와 봉건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비껴있는 자기 나라의 량쪽모습을 한눈에 굽어보고있는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그 령지는 가문의 더없는 재산이며 상징이기도 하였고 또 골치거리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슈와나스가 태여나던 20세기 전반기에는 그래도 그 땅의 주인들이 모두 화목했으며 평화롭게 지내고있었다.

독자들이여, 우리 함께 주인공이 태여나던 그 시절의 판도리비비마을로 들어가보자.

1. 판도리비비마을(1)

1926년 9월 15일.

인디아의 판잡(5개의 물줄기)주 호쉬아프르구역 판도리마을에 제일 땅많고 덕이 있는 집안으로 소문난 샤르마가문에 또 한세대의 장손이 첫 고고성을 터치였다.

태여날 때부터 남달리 크고 머리칼이 새까맣게 나와있는 그를 보며 가문의 어른들은 모두 무연히 펼쳐진 조상의 땅을 믿음직하게 다스릴 미래의 주인이 태여났다고 자못 기뻐하였다.

그 가문에는 조부와 증조부의 갈래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력대적으로 맏자식의 맏아들이 가문의 상속권을 이어받는것이 기정사실화되여있기때문에 가문의 장손인 그 아이는 틀림없이 샤르마가문을 주인이 되여 이끌고나갈 《력사적》사명을 지니고 태여난 귀동자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비슈와나스였다.

아직 살아있는 할아버지계렬의 조상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성은 아니고 그저 이름이였다. 그는 애초에 성을 쓰지 않았다.

비슈와나스!

그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저 부르기 쉬운 이름이라고만 생각되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이름에는 이미 사라진지 오랜 싼스크리트어(고대인디아어)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그것이 알려지기까지에는 세기가 바뀌여야 했다.

온 세계에 명성이 알려질 때 그 이름의 뜻도 비로소 알려지게 되는것인지.

만약 그때 인디아에도 봉건제도성립시기부터 20세기초까지 유럽

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 존재하였던 작위제도가 있었다면 샤르마의 이 후손에게 백작이든 후작이든 세습적인 작위가 차례졌을수도 있을것이다.

증조부 리쉬 샤르마는 가문의 이 땅을 마련하고 사탕공장을 운영한 사람이였다.

할아버지 쌀리그 람 샤르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였다. 그는 인디아에서 알려진 농업교수였다.

쌀리그 람 샤르마는 새 품종의 남새들을 육종해냈으며 그것을 자기 땅에 퍼치게 했다. 그는 인디아의 서부에만 자라고있던 빠빠야(호박비슷한 남새)의 품종을 개량하여 판잡주에도 자라게 했으며 인디아땅의 농법에 대한 책도 여러권 썼다.

오늘의 북부델리에 있는 인디아정부 농업성산하 연구소인 뿌사농업연구소가 바로 쌀리그 람 샤르마가 있던 연구소의 후신인것이다. 이 연구소는 원래 빠뜨나에 있었는데 1918년에 지진으로 무너진 후 여기로 옮겨온것이였다. 이 연구소의 넓은 홀에는 인디아농업발전의 자랑찬 연혁을 말해주듯 력사적으로 공로있는 농학자들의 초상이 걸려있다. 거기에 영국의 통치하에서 유일하게 인디아인으로서의 농업박사였던 쌀리그 람 샤르마의 초상이 오늘도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였다. 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250정보의 시험포전에는 오늘도 쌀리그 람 샤르마가 육종한 새 품종의 여러가지 밀, 벼, 남새들이 자라며 그의 공로를 전해주고있다.

쌀리그 람 샤르마는 비슈와나스가 태여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비슈와나스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어른이 된 다음에 이 연구소에서 볼수 있었다. 쌀리그 람 샤르마는 빠뜨나에서 지진이 일어나던 그 해에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당시 할아버지의 나이가 42살이였던것으로 보아 그는 어려서부터 수재였던것 같다.

가문의 땅은 할아버지의 형인 라챠만 다스가 경영하고있었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도 공부를 한 사람이였다. 가문의 좌상이 된 그에게는 이 광활한 령지를 떠메고나가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이 없었다.

라챠만 다스도 비슈와나스의 출생을 기뻐하였다.

이 어린 복동이는 장차 가문의 이 령지를 떠메고나갈 주인이였다.

부유하고 교육받은 가정에서 태여난 비슈와나스는 무럭무럭 자랐다. 물질생활도 정신생활도 높은 급에서 향유하며 아이는 부럼없이 자랐다.

샤르마가문은 대대로 힌두교도들이였다. 모두가 힌두교를 숭상하였다. 그러나 실지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전들은 누구보다 많이 보고 교리도 잘 알고있었지만 사원에는 다니지 않았고 《브라만신》이나 《비슈누신》, 《쉬바신》(힌두교의 기본신앙대상인 세계창조신, 생명보존신, 파괴신을 말함.)중에서 그 어느 신을 우러러 빌지도 않았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라도 더 현실적인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히 돌아갔다. 이것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그의 가문은 그때에 벌써 고급한 사고를 하는 지성인들이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한 가정의 교양을 받으며 비슈와나스는 자랐다.

인디아는 전설이 많은 나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간이 주어지는대로 날마다 인디아땅에 깃들어있는 신비로운 전설들과 성인들의 영웅담에 대하여 어린 아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해주었다.

귀여운 이 어린 복동이를 가문의 사람들은 그저 비슈라고 즐겨불렀다.

그가 태여난 판도리마을을 멀리 감돌아흐르는 비아스강에도 수많은 전설들이 깃들어있었다.

판도리마을의 한복판에 지금도 보존되여있는 그의 고향집 대문에도 아름답게 부각된 전설속의 새들이 날고있었다.

긴 목을 앞으로 빼들고 긴 다리는 뒤로 늘이고 좌우로는 쌍겹으로 된 큰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

어린 비슈는 그 새가 새겨진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군 하였다. 그러면 자기도 큰 새가 되여 멀리멀리 아름다운 세계로 날아가는듯싶었다.

《엄마, 이 새가 무슨 새나?》

모든것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어린 아들을 대견히 바라보며 두르가데비는 말하였다.

《그 새는 두루미라는 새란다. 그 새는 장수와 깨끗함을 상징하는 새란다.》

그 시절에 어머니의 말을 다 리해할수는 없었으나 두루미라는 새가 좋은 새라는 인식만은 어린 비슈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정말 그 새가 무연히 펼쳐진 자기네 땅우를 날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날마다 그 두루미떼를 쫓아가며 그 새의 마음이 되여 이 세상을 훨훨 나는 꿈을 꾸고있었다.

자기 집대문에 새겨진 두루미는 더 크고 아름다왔다. 그는 두루미라도 자기 집대문의 그 아름다운 두루미가 되고싶었다.

이 집의 대문에 새겨진 전설속의 두루미, 아마도 거기에는 이 집의 후손들과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길이길이 장수하며 깨끗하게 살기를 바란 조상들의 말없는 념원이 깃들어있으리라.

그 집은 19세기 초엽에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서 건평수는 1 000평방메터에 달하였다. ㄷ자형으로 된 그 집의 대문은 오늘의 궁전들의 출입문보다도 2배나 큰 쌍문이였다. 하지만 그 문은 무게의 힘을 받지 않고 가볍게 밀기만 해도 스르르 열리고 닫기군 하였다.

집의 마당은 그저 포장한 공지였고 방은 무려 40칸이였다. 거기서 직계가족들이 저마끔의 방을 차지하고 살았다. 집의 지붕은 나무로 얹었는데 밤색칠을 진하게 하여 유별나게 나타나고있었다.

집의 량옆으로는 그보다 약간 작은 집들이 8채나 있었다. 그 집들은 어미집을 좌우로 둘러싸고 보호해주며 따르는 파수병들같았다. 그 집들에서는 친척들이 살았다. 단층으로 지은 그 집들마다에는 저마끔의 우물들이 있었고 둘레둘레에는 모두 빨간 벽돌로 울바자를 둘러쳤다. 1메터남짓한 그 울바자우에는 쟈스민, 장미, 해바라기 등 갖가지 꽃들이 계절을 따라 피고있었다.

어린 비슈는 이 울바자에서 저 울바자에로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는 이 마을, 이 족보의 꼬마주인이였다.

족보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바라다니기를 좋아하는 이 꼬마주인이 나타나면 저마다 반겨맞아주며 제 자식들이 그와 가깝게 지

내기를 바라마지않았다. 그것은 족보의 장손으로 되여있는 이 꼬마주인이 먼 후날 가문의 령지를 다스리게 될 그날에 가서 저들의 자식을 잊지 않고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같은또래의 아이들보다 몇살 우이라고 할만큼 몸집이 컸으며 눈과 코, 모든것이 다 큼직큼직하게 생긴것으로 하여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날을 두고 기대를 표시하군 하였다.

판도리마을의 인구수는 2 500여명이였는데 그중 비슈와나스의 가족들과 친척계렬에 속하는 사람들이 근 200명이였다. 그들이 모두 가문의 이 땅을 뜯어먹고 살았다.

당시 이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다. 하지만 극히 적은 한두 집에서만은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보고있었다. 샤르마가문에서는 기본 관수를 위해 발전기를 돌리고있었다. 5개의 물줄기가 있다는 뜻에서 판잡주였으나 이 마을에서 강까지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지하수를 뽑아 관개수로 리용하고있었던것이다.

해가 짧은 계절에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조명등을 켰다. 비슈와나스는 그 조명등밑에서 다른 애들보다 앞서가며 글을 익혔다. 무더운 여름날에 책을 볼 때면 큰할아버지인 라챠만 다스가 특별히 그의 옆에 선풍기를 놓아주군 하였다. 가문의 장손을 위해선 아까울것이 없었던것이다.

《비슈야, 누구보다 공부를 잘해야 하느니라.》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친척들만이 아닌 모든 농군들이 비슈와나스의 아버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바드리 나트 취바였다.

비슈와나스의 증조부 리쉬 샤르마를 그저 취바라고 불렀기때문에 아버지는 성을 취바로 쓰고있었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의사였다. 그는 당시 호쉬아프르구역의 남쪽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학공부를 한 자격의사였다. 그때는 구역적으로 대학졸업생을 꼽을 정도였다.

구역에는 2 000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동, 서, 남, 북으로 갈라 한개 지역을 500개의 마을로 하고있었다. 판도리는 구역의

남쪽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여기에 역시 500개의 마을이 있었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이 지역 사람들의 병을 돌보는 의사였다. 이 지역에서 그의 이름은 취바박사로 통하고있었다. 그는 일찌기 박사학위를 받았던것이다.

취바박사는 말을 타고 다니였으며 때로는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쉬임없이 다니였다. 병이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었던것이다. 어떤 날은 20～30키로메터씩 걸어다니며 치료하군 하였다.

직업적인 의사로서의 성실함과 친절함이 온몸에 배여있는 취바박사를 사람들은 따르며 존경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조건없이 무상치료를 베푸는 그의 이름은 주정부에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시 주장관이였던 영국인이 주정부의 이름으로 건물을 해결해주었으며 얼마간의 약품까지 보장받도록 대책을 취해주었다. 그것이 전인디아땅을 통치하던 영국인들이 저들의 《보호적인 시책》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더욱더 바드리 나트 취바를 《신》처럼 모시였으며 그는 더 많은 시간을 환자들에게 바칠수 있게 되였다.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바드리 나트 취바는 아들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며칠만에 집에 들어올 때면 어김없이 그는 어린 아들이 그 기간에 배운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검열하였으며 또한 과제를 주기도 하였다.

어린 비슈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엄한 《책》이였다. 아들은 오직 그 《책》대로만 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을 떠나있는 시간이 많았으므로 그에 대한 양육과 교육교양은 주로 어머니가 하였다.

어머니 두르가데비는 명문가문의 출신이였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였다.

두르가데비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쁜 버릇이 붙으면 고치기 어렵다고 하면서 태여나는 자식들을 모두 대바르고 훌륭하게 잘 키우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두르가데비는 처녀때 고등학교를 나오고 2년제교원양성교육을 받

은 자격교원이였다. 그는 가정교육과 정규교육을 잘 받은 녀성이였다. 그의 친정아버지가 프린슬리주의 교육상이였던것이다. 프린슬리주는 판도리마을에서 150키로메터 떨어진 두르가데비의 친정집이 있는 곳이였다.

당시 인디아에는 500개의 주가 있었는데 매 주들마다에는 마하라자(위대한 왕이라는 뜻.)들이 틀고앉아 통치하고있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영국인들이였다.

두르가데비의 아버지는 프린슬리주에서 그 마하라자의 고문이면서 교육을 담당하고있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의 아버지켠은 대체로 땅을 가지고 친족끼리 경작하며 과학연구활동에 종사했다면 어머니켠은 거의다가 정치활동에 참가하며 행정관료들을 하고있었다. 그런 혈통을 이어받아서인지 두르가데비도 100살을 넘긴 생애의 말년까지 신문을 많이 보며 국내외의 사건들과 정당들의 관계에 대해 자식들에게 말해주군 하였다고 한다.

결혼후 두르가데비는 판도리마을에서 교육활동에 모든것을 다 바쳐갔다.

판도리에는 소학교(5년제)가 하나뿐이여서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 갈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돈이 문제였지만 돈있는 사람들도 학교의 수용능력이 모자라 자식들을 학교에 다 보낼수가 없는 형편이였다.

두르가데비는 마을중심에 알맞춤한 건물을 하나 짓고 농민학교라고 이름을 달았다. 그리고 거기의 주인이 되여 농민자녀들에 대한 소학교교육을 시작하였다. 학년별에 따르는 교재들과 비품을 프린슬리주에 가서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는 자기를 자선가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이웃들을 위해, 농군들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것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였을뿐이다.

두르가데비는 아이들을 가르치는외에는 언제나 말없이 조용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는 온 마을사람들이 이야기하였다.

비슈와나스가 그 농민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자 두르가데비의 명망은 더욱 높아졌다. 자식에게 주는 훌륭한 어머니의 교육교양

이 농민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지는것이였다.

농군들은 감지덕지해하였다.

예로부터 밥은 아무곳에서 먹을지언정 교육만은 교양있는 집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아이들을 교양하는 두르가데비의 말은 그야말로 《신》의 가르침과도 같았다.

두르가데비는 마을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농민들의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에게서 배우며 소학교시절을 보냈다. 연줄연줄 태여나는 그의 동생들도 그렇게 배우며 자랐다.

마을에는 몇몇 안되는 토호들과 고리대들도 있었다. 그런 집의 땅을 부치며 연명해가는 소작농들의 집은 가난하였다. 대개가 그들은 한칸짜리 집에서 살고있었다. 낡은 양철판들을 무어 웃설미를 한 집들이다보니 우기에는 그 지붕으로부터 물이 흘러떨어지고 무더운 여름날이면 더운김이 확확 풍기며 추운 계절에는 차디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그런 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살며 가축을 치고 면양과 염소를 길렀다. 수백년동안 땅없는 농군들은 이렇게 살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은 한줄기 땅덩어리에 매달려 운명의 노예가 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였다.

이것이 봉건의 질곡이 질게 드리운 20세기 전반기 인디아농촌의 모습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이 모든것을 보며 자랐다.

비오는 날 우산없이 진창길을 걷는 농군들이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농군들의 그 모습은 그의 뇌리에 가난한 인디아의 농촌의 모습으로 깊이깊이 새겨졌다. 그는 한생토록 자기 나라의 그 가난한 농촌의 모습이 가셔질 날은 언제일가 생각하였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디아농민들은 소가 늙어죽을 때까지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며 《우대》해주어야 하는 고달픈 생활까지 걸머지고있었다.

인디아와 같이 말못하는 짐승인 소를 우대하는 나라는 없다. 하기에 인디아는 세계에서 소마리수가 제일 많은 나라로도 유명하다.

그러면 그들이 소를 우대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인디아에서 소가 힘든 일을 대신해주기때문인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부림소로 리용하면서도 명절때나 혹은 일상적으로 소를 잡아 맛있는 고기와 가죽을 얻고있지만 이 나라에서만은 종교적악습때문에 소를 잡지 못하게 되여있는것이다.

인디아주민의 대다수가 힌두교를 믿고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죽으면 령혼이 동물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소를 신성한 동물로 믿고있는것이다.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지어 그들은 뱀이나 벌레들까지도 죽이는것을 꺼려한다. 그러므로 데칸높은벌과 같은 숲속에는 독사들이 욱실거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형편이였다. 지어는 공업도시들에서도 우대받는 소들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할수 없으며 자동차나 뻐스들이 조심히 다녀야 했다. 소가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에도 그들은 소를 죽이지 못하고 보호하였다.

참으로 가난과 종교적악습으로 인디아농민들이 2중3중으로 걸머지는 부담은 컸다.

두르가데비는 이처럼 가난하고 우매한 농군들의 아이들도 차별없이 배워주었다. 머리가 총명한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돌려 집에 데려다 재우고 먹이면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였다.

무엇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르가데비의 타고난 미덕은 이웃들을 도와주는것이였다.

선량한 녀성의 가슴에는 남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

가난한 집 자식들을 돌봐주는 어머니의 의협심은 어린 비슈와나스의 가슴에도 깊이 흘러들었으며 그것은 그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두르가데비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그의 소리없는 웃음은 가문을 화목케 하고 농사를 흥하게 하였다. 그래서

인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두르가데비를 존경하였다. 간혹 친척들끼리 의견상이가 생기면 모두 그를 찾군 하였다. 사리를 밝혀 조용조용 말하는 그의 설복에 리해 못할 사람이 없었다. 그의 온화하고 조용한 몸가짐, 자애에 넘치는 맑은 눈초리 그리고 마치 기도를 올리는듯한 겸허한 의견과 친절성, 이러한 모든것이 커다란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샤르마가문의 가장인 라챠만 다스도 그를 좋아하였다.

샤르마가문에 대해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몇몇 안되는 토호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이였다. 그들의 땅을 부치는 소작농들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저들에게가 아니라 두르가데비를 찾아가기때문이였다. 그때마다 그는 농군들이 바쁜 고개를 넘어서도록 도와주군 하였다. 그러면 토호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은 마치도 저희들의 주머니에서 무엇이 나가기나 하는듯이 시기했다.

두르가데비는 주정부와의 관계도 좋게 가지며 사업을 잘해나갔다. 주장관을 비롯한 주의 관리들이 마을에 내려오면 그들을 대접했고 그 기회에 마을에서 도시와 련결하는 도로수리문제 등 제기되는것들을 설득력있게 제기하여 풀군 하였다.

이 모든것을 보며 어린 비슈와나스는 이 세상에서 자기 어머니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저도모르게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였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첫 학교는 어머니이다. 그들의 눈에 비낀 어머니의 모습은 곧 이 세상인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긍지가 높아갈수록 어린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우월감과 배짱이 소리없이 깃들고 싹트기 시작하였다.

어린시절의 환경은 사람들에게 미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요인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그의 가정엔 사랑과 존경이 흘렀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것이였다. 그것이면 되였다. 부모와 자식간에 그것이 흐르면 그 가정의 앞날에는 어두운 그늘이 비끼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

두르가데비의 젊은 시절은 농민자녀교육에 다 바쳐지며 흘러갔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 마을에서는 누구나 두르가데비를 이름으

로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였다.

마을에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그리스도교 등 여러 교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두르가데비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였다. 늙은이, 젊은이 할것없이 그리고 농민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그를 어머니라고 즐겨불렀다.

두르가데비는 온 마을의 어머니가 되였으며 그는 곧 이 마을의 상징으로 되였다.

언제 어느때 누구의 입에서 흘러나왔는지는 모르나 사람들속에서는 이 마을이 점차 《비비(어머니)마을》로 불리워지기 시작하였다. 두르가데비가 운영하던 학교도 《비비학교》, 바드리 나트 취바가 운영하던 병원도 《비비병원》…

그리하여 오늘은 정식 그 옛날의 판도리가 판도리비비로 지도에 표기되여 어머니마을이 인디아땅에 전설같이 생겨난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아마 그래서 나온것인지도 모른다.

2. 사춘기의 한때

이 세상 그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을 출발선에서부터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하려는것은 공통된 심정이다.

비슈와나스의 부모도 다를바 없었다.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으며 또한 그런 가문이였다.

비슈와나스의 고등학교(6년제)시절은 불밝은 도시에서 흘러갔다. 두르가데비는 자기의 슬하에서 5년간의 소학교신발을 든든히 신긴 다음 그를 프린슬리주의 친정집으로 보냈던것이다.

아이들의 미래의 운명은 어머니의 노력과 갈라놓을수 없다.

당시 프린슬리주는 인디아에서 교육이 가장 발전하고 번성하던 주로 알려져있었다. 이 주의 교육상인 두르가데비의 친정아버지 아워스티는 비슈와나스를 가정교사까지 붙여가며 공부시켰다.

소학교시절도 그랬거니와 고등학교시절도 비슈와나스의 생활

은 배움속에 부럼없이 흘러갔다.

외할아버지의 집은 도시의 중심에 있는 3층으로 된 독채였다. 매층에 다 큰 전실이 있고 여러개의 방들이 있었다. 식구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이 전부였다.

비슈와나스는 2층의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많은것을 보며 많은것을 먹으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자래워갔다.

판도리비비마을의 고향집에는 발전기가 소리를 내며 전기를 일으켰는데 이 집에는 소리없이 어데선가 전기가 흘러오고있었다.

외할아버지는 주공주를 비롯한 주의 많은 권력자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때로 그는 그들과의 놀음에 령리한 이 어린 외손자를 즐겨 데리고가기도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비슈와나스는 딸의 자식이였지만 첫 손자였던것이다.

영국의 통치하에서의 한개 주의 교육상인 아워스티는 사랑스런 이 외손자를 근대문명에로 이끌어갔다. 그는 윙—윙— 돌아가는 기계의 소음을 노래마냥 들으며 화려한 도시의 거리를 걸어 학교에 오갔다.

거리에는 자그마한 손달구지에 끓는 차가 담긴 커다란 통을 싣고다니면서 건강에 좋다고 선전하며 그것을 그냥 주는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였다. 건강에 좋다는 차를 왜 공짜로 사람들에게 주는것일가. 아마도 영국인들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자기네가 인디아를 현대문명에로 이끌었다는 강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누구나가 차를 마시지만 그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인디아에서 끓는 차를 마시는 풍습은 몇백년전의 조상때부터 전해내려오지만 그때에는 사람이 열이 나거나 아플 때에 마시는것으로 되여있었던것이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어릴 때부터 차를 마시며 자랐다.

그는 근대교육바람을 쏘였다.

아마도 프린슬리주에 대학이 있었다면 아워스티는 그를 그냥 붙잡아두고 손때묻혔을것이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학이 없었다. 하여 두르가데비도 처녀때 고등교육만은 까쁘르탈라주에 가서 받았던것이다.

인디아의 모든 주들이 당시에는 영국의 모자를 쓰고있었다.

500개의 주중에서 그때에는 3개의 주(까쁘르탈라주, 판잡주, 빠띠알라주)에만 대학이 1개씩 있었다. 그때 인디아에서 고등교육기관이란 이 3개의 대학이 전부였던것이다.

샤르마가문의 장손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비슈와나스도 대학에 가야 했다. 그 가문의 직계에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황금 천냥이 자식교육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교육이 그 인간과 한 가정의 흥망은 물론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하기에 력사적으로 어느 사회에서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이든지 다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오는것이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아들이 의사가 될것을 바랐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라호르에 있는 메요 예술 및 상업대학을 지망하였다. 그것은 그 대학에 프린슬리주의 고등학교 동창들 몇명과 소학교시절의 가장 가까왔던 동무 알따브 후쎄인이 이미 입학시험을 쳐 붙었기때문이였다. 그들이 비슈와나스를 추동하고 있었다. 비슈와나스 역시 그 대학에 가면 고향집대문에 부각되여있는 전설속의 두루미가 날개를 휘저으며 멀리 바라보는 무아경의 그 세계에로 끝없이 날아갈것만 같았다.

라호르는 판도리비비마을에서 350키로메터정도 떨어져있는 판잡주의 소재지이며 공업과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11세기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이 도시에는 당시에도 고대문화의 유적유물이 많이 보존되여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하고싶어했고 또 일하고싶어했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맏아들을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 보내여 의학을 공부시켜 자기의 대를 잇게 하고싶었으나 강요하지는 않았다. 자식이지만 이제는 자기딴의 세계관이 어느정도 섰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의향을 존중시하는 바드리 나트 취바였다. 그는 아들에게 네 갈길이 정해져있으면 네 마음대로 하되 일단 정해진 길은 후회하지 말고 곧바로 가라고 하였다.

큰할아버지 라챠만 다스는 어느 대학에 가든지 장차 가문의 령지를 이어받아 관리할 실력을 한껏 배양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마지않았다.

때는 1942년 봄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입학시험 마지막날에 응시하여 높은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상업학부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독립적인 그의 생활이 시작되였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 대학공부를 하는 아들에게 매달 25루삐(인디아의 화폐단위)의 돈을 주었다. 그때로서는 학비와 기숙사비를 물고도 여유가 있는 돈이였다.

수업은 아침 7시에 시작되였다. 하지만 수업전에 전체 학생들은 매일아침 운동장에 모여 《하느님》을 우러러 기도를 해야 했다.

《주여,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옳은 길로 들어서도록 도와주십시오. …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나의 조국 인디아입니다. 한쪽에는 히말라야산이 있고 다른쪽에는 대양이 있고 나라는 꽃으로 가득차있습니다. … 그것이 나라를 지켜주고있습니다. …》

모든것이 영국식이였다. 예속국은 종주국의 모든것을 본따야 하는것이였다.

소학교때부터 기도를 해왔지만 대학에서는 그 문구가 보다 길었고 무조건 암송해야 하였다. 차렷하고 꼿꼿이 서서 기도문을 외우는 비슈와나스의 몸은 언제나 편치 않았다. 하지만 악단이 연주하는 찬송가의 비장하고도 무거운 선률에 눌리우기라도 한듯 그는 꼼짝 못하고 서있어야만 하였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의례히 키가 늘씬하고 얼굴이 새하얀 학장이 학생들앞에 나섰다.

영국사람인 그는 진곤색 제낀옷을 입고 그안에 받쳐입은 조끼에는 금색을 띤 사슬을 늘이였다. 그는 동그란 코안경을 걸치고 그 누구를 보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눈길로 좌우를 둘러보며 혀가 잘 안도는 힌두어로 훈시하군 하였다.

대학의 실권자인 그의 말은 매일아침 기도문을 외우는 학생들에게 그 실천여부를 공개하는 《하느님》의 판별과도 같은것이였다. 《하느님》의 의도를 따른 학생들에게는 칭찬이 내렸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벌이 내렸다.

《하느님》을 우러러 속죄하는 기도는 그때도 하고 세기가 바뀌

여진 오늘에도 달리되지 않고있다. 소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것은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의 법도로 되여있는것이다. 그만큼 《하느님》의 생명은 저 하늘과도 같이 이 세상에서 무한대한한것인지.

그 《하느님》의 세상에서 그 누군들 뛰쳐나올수 있으랴.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그 《하느님》의 세상이 답답하였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하느님》에게 바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우월감과 자존심으로 부풀어오르던 그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오후 2시에는 수업이 전부 끝났고 그이후에는 복습시간이였는데 그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축내여 무엇이든지 새로운것을 즐겨야 하였다. 그가 바라는것은 새로운 거리, 새로운 경치, 새로운 체험이였다.

비교적 온화하고 내성적인 알따브 후쎄인은 기숙사에서 그냥 공부하자고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이미 외할아버지의 혜택을 받아 많은것을 앞서가며 무르익혀온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활동적인 그에게 있어서 하루종일 앉아있는다는것은 참으로 그자체가 괴로운 중로동으로 되는것이였다.

대기에는 훈향이 감돌고있었다.

인디아에서 계절은 대체로 3개의 계절로 나뉘여진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남서계절바람이 부는 시기로서 장마철로 되며 12월부터 2월까지는 북동계절바람이 부는 시기로서 비가 적게 내리는 계절이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계절바람이 바뀌는 시기로서 제일 더운 때이다.

4월과 5월이 서로 가까이하고있는 계절이였다. 대자연은 어서 오라 날마다 그를 부르고있었다. 그리하여 비슈와나스는 《하느님》의 뜻을 조금씩 거역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짝패들과 어울려 라비강으로 자주 나갔다. 원래 그는 운동하기를 좋아하였는데 특히 수영과 뽀트에 대단한 취미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대지는 신록으로 눈부실 정도였다.

푸른 옷차림을 한 뽕나무들이 강기슭에 줄지어 서서 새빨간 빛

의 갸름한 오디들을 반짝이며 언제나 반겨맞아주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대자연의 이 향취를 한껏 들이키며 노래를 불렀다.

젊어서는 분위기에 의해서만도 노래가 나오는것이다. 그만이 아닌 생명을 가진 만물이 노래를 부르는 좋은 계절이였다.

연한 뽕나무향기가 스민 대기속에는 꿀벌의 잉잉거리는 소리며 온갖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다.

비슈와나스는 그 모든 음향을 들으며 라비강의 물결을 헤염쳐갔다. 라비강은 인디아에서 시작되여 카슈미르를 지나 오늘의 파키스탄지역으로 흘러가는 유명한 강이였다.

판도리마을에서 제일 가깝다고 하는 비아스강은 마을에서 35키로메터정도 떨어져있었으나 라비강은 대학기숙사에서 4키로메터에 불과한 거리였다.

이 강을 헤염쳐갈 때면 몸도 마음도 더 넓어져 저 하늘이 통채로 가슴에 안겨지는듯싶었다.

그렇게 몇달.

뽕나무의 잎새들이 노랗게 물들며 떨어지는 계절이 오면서 강에 뛰여들기가 힘들어지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극장과 전람회장 같은데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인차 싫증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것이 날마다 있지 않았던것이다.

휩쓸리기를 좋아하는 그는 자기도모르게 어지러운 패당들속에 끼여들게 되였다. 그 패당은 집을 뛰쳐나간 무리였다. 그들은 비슈와나스를 보고 우선 녀선생들에게 걸치라고 하였다. 몇번 그렇게 하니 그들은 너는 이미 잘못을 저질렀으니 우리 패에서 못나간다고 오금을 박았다.

비슈와나스는 그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다니며 놀기 시작하였다.

《비슈, 너 정신을 차려라!》

소꿉시절 짝패인 알따브 후쎄인이 하는 말이였다. 비슈와나스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그는 진정으로 충고를 주었다. 하지만 한번 빠진 구멍에서 쉽게 발을 뽑을수가 없었다.

토요일이 왔으나 비슈와나스는 집에 가지 않았다. 패당들과 이미 일요일에 어디에 가서 놀자고 약속이 되여있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의 부모들은 걱정했다. 언제한번 생활질서를 지키지 않은적이 없는 아들이였던것이다. 두르가데비는 빨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고 독촉했고 바드리 나트 취바는 무언이였다. 그렇게 또 한주일이 흘렀다.

알따브 후쎄인은 이번에도 혼자 고향마을에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비슈와나스의 부모를 찾아가 알고있는 모든것을 전하였다. 알따브 후쎄인은 자기의 힘으로는 안되니 부모들을 동원하여서라도 동무를 옳은 길로 이끌어야겠다고 결심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바드리 나트 취바가 대학에 찾아왔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비슈와나스는 가슴이 섬찍하였다. 언제한번 아버지의 비위를 거슬리게 한적이 없는 그였던것이다. 아버지가 기숙사에까지 왜 찾아왔는가는 말없이도 뻔한 일이였던것이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믿었더니 네 앞날이 걱정되누나. 이번 토요일에는 집에 오도록 해라.》

긴말없이 바드리 나트 취바는 돌아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낮으나 근엄한 그 한마디의 말은 비슈와나스의 가슴에 천만마디의 말로 이어져울렸다.

언제한번 큰소리를 친적이 없는 아버지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어린시절 잘못을 저질렀을 때처럼 그날도 조용히 엄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는 돌아가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저녁 알따브 후쎄인은 절절히 말하였다.

《비슈! 너는 어디로 가려니?》

친구의 그 말이 비슈와나스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알따브 후쎄인의 말이 이처럼 심금을 울린적은 없었다. 이 순간 비슈와나스는 정신이 버쩍 드는것을 느꼈다.

비슈와나스는 밤깊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부모를 두고, 친구를 두고 깊이깊이 되새겨보게 되는 밤이였다.

3. 《하느님》이 준 기회(1)

누구에게나 타고난 천성이 있는듯싶다.

잠시 《하느님》을 노엽힐번 했던 비슈와나스는 제때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왔으나 그 오후에만은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오금이 쑤셔났던것이다.

나쁜 아이들과 휩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것이 낫다고 하였지만 그는 도저히 오랜 시간을 혼자서 책을 보고만 앉아있고싶지 않았다.

《하느님》은 모든 진리의 대변자로 이 세상에 배회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이 무서워 언제까지 학교울타리안에 붙잡혀있을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자기의 소행이 그 안경쟁이 학장님의 귀에까지는 가닿지 않아 전교앞에 나서서 《하느님》의 벌을 받는 끔찍한 일은 모면할수 있었지만 마음속의 두루미는 어디론가 그냥 훨훨 날고있었다.

사람은 자기의 지망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인생에 있어서의 첫째 과업은 자신을 발견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자신과 부단히 이야기하고있었다.

아, 비슈! 너는 정녕 어디로 가려니?

잠못들며 모대기며 어느새 한학년이 흘러갔다.

그는 온 세상을 날아보고싶었다. 사람이 하늘을 날으려면 배워야 한다. 지식은 하늘을 날으는 날개인것이다.

법학을 전공하는 알따브 후쎄인과 상업금융을 전공하는 비슈와나스는 다같이 공부를 잘하였다.

사람에게는 일정한 장점들이 다 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알따브 후쎄인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진지하게 끝까지 파고들어 결론을 도출해내는 학구적인 자세가 있었다. 변증법적유물론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있는 그는 감정에 포로되지 않는 랭철한 리성의 소유자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알따브 후쎄인은 말하였다.

《사물현상의 발생발전과 전반적련관의 가장 일반적합법칙성을 터득하지 않고서야 객관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어떻게 정확히 할수 있는가?》

그의 말은 언제나 명료했고 정확하였다. 그리하여 비슈와나스는 그의 말만은 인정했고 따랐다.

반면에 알따브 후쎄인은 비슈와나스에게서 놀라운 기질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우선 그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상한 귀납추리능력과 연역추리능력을 다같이 소유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범상한 현상을 보고도 그 본질을 순간에 파악했으며 또한 개별적인 사실을 놓고서도 즉시 일반적결론을 내리는것이였다. 그가 자라온 환경이 그에게 그처럼 비상한 두뇌를 준것인지도 몰랐다. 사실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것을 들어왔고 보아왔고 또한 많은 교육을 받아왔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것, 더 새로운것을 보려고 하고 또 체험하려고 하는것인지도 몰랐다.

또한 그에게서 찾아볼수 있는것은 학업과 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유와 활동이 매우 실천적이라는것이다. 때로 자기 감정을 다잡지 못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즉흥적이고 과격한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대신 그에게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데가 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세계의 이름있는 시인들과 작가들의 작품들도 미친듯이 읽고있었으며 즐겨 자작시들을 쓰기도 하였다. 어찌보면 그는 문학소년같기도 하였다.

그것 역시 그가 자라온 환경과 련관되여있는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였다. 그의 문학적수양에는 중학시절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사람은 문학을 알아야 아름다와지고 자신을 고상한 존재로 느낄줄 알게 된다는것이 아워스티가 외우던 론거의 하나였던것이다.

정열에 북받치는 소년의 가슴은 그냥 푸른 하늘을 날고있었다. 그는 계속 자기자신과 이야기하고있었다.

아, 비슈! 너는 정녕 어디로 가려니?!

시간을 잃으면서도 《하느님》앞에 순종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는 또다시 시가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대학에서 1키로메터정도 떨어져있는 《트리뷴》(신문사)청사 옆을 지나치던 그는 문뜩 아르. 아르. 샤르마가 생각났다.
그렇다. 그를 만나보자. 이 신문사의 부총경영자가 다름아닌 아르. 아르. 샤르마이니 혹시 그가 나에게 일감을 줄수도 있지 않는가.
아르. 아르. 샤르마는 친척계렬에서 비슈와나스에게 5촌벌이 되였다. 그는 아버지와 4촌간이였던것이다. 당시 라호르에는 샤르마 가문의 갈래들이 적지 않게 요소요소에 뻗쳐져있었다.
은근한 기대를 안고 비슈와나스는 아르. 아르. 샤르마를 찾아갔다. 그는 마침 2층의 자기 방에 있었다. 그는 반가와하였다. 하지만 일감을 달라는 조카의 말을 듣고는 아예 딱 잘라말하는것이였다.
《너 이제야 17살인데 여기 와서 뭘하겠니. 허튼 생각 말고 공부에나 전심하거라.》
비슈와나스는 사정하였다.
《삼촌! 나 무엇을 좀 배우고싶은데 여기서 시간을 보내며 견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르. 아르. 샤르마는 조카의 부탁을 애초에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비슈와나스는 삼촌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며 호소하다싶이 간청하였다.
《삼촌! 나는 로임을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사정이니 무엇을 좀 배우게만 해주십시오.》
아무리 졸랐댔자 소용이 없었다.
아르. 아르. 샤르마는 처음에는 타이르던 말투였으나 점점 책망하는 말투로 나오는것이였다.
여기서는 전망이 없음을 깨달은 비슈와나스는 대충 인사를 하는둥하고 방을 뛰쳐나오고말았다.
억이 막혔다. 삼촌이란 사람이 어찌 그럴수 있는가.
정말로 그는 나의 학업이 걱정되여 거절하였는가? 아니면 시끄러워서 거절하였는가?

생각할수록 비슈와나스는 아르. 아르. 샤르마가 삼촌같지 않았다.

이런 경우 서로 리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삼촌은 삼촌대로, 조카는 조카대로…

비슈와나스는 격한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일생에 이렇게 사정해보기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마음에도 자존심이 꿈틀거리였다.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당한 요구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던 아버지,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이…

또한 외할아버지가 보고싶어졌다. 외할아버지라면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고도 남았을것이다. 그때는 좋았다. 외할아버지는 부탁하기 전에 새 책들도 우선적으로 가져다주었고 또 자기를 데리고다니며 새로운것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한순간에 엇갈리는 생각들을 헤치며 그는 계단을 마구 뛰여내리였다.

정신없이 앞을 보지 않던 그는 굽인돌이에서 그만에야 올라오던 사람과 맞부딪쳤다.

순간 정신이 버쩍 들었다. 그제서야 생각은 현실로 돌아왔다.

자기앞에는 풍채좋은 한사람이 얼떠름해 서있는것이였다. 나이는 지숙하였다. 그의 머리에 씌여져있던 터번(머리에 둘둘 감고다니는 흰천)은 복도에 떨어져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너무도 당황하여 그것을 주을 생각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다치며 사죄하였다.(발을 다치는것은 인디아풍습에서 인사례절이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풍채좋은 그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연신 조아리는 소년을 손잡아 일으켜세웠다.

《있을수 있는 일인데 뭘 그러나?!》

그 한마디 말에 비슈와나스는 너무도 황송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앞을 보고 다니라는 욕바가지를 쓸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다니!

그 사람은 의아한 시선으로 묻는것이였다.

《그런데 너 여기에 무슨 일로 왔니?》

비슈와나스는 머리를 들지 못한채 머뭇머뭇하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았다.

《삼촌을 만나려고 왔다가 지금 너무 실망하여 정신없이 내려가던 참입니다.》.

《그래 삼촌은 만났느냐?》

《예!》

그는 잘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기우뚱거리며 말하였다.

《필경 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나. 방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가.》

그는 앞서서 계단을 오르며 비슈와나스에게 어서 따라오라고 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층계를 내리던 비슈와나스는 다시 층계를 오르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운명의 층계를 올랐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것이 운명의 층계라는것을 알지 못했다.

비슈와나스는 넓고 화려한 방에 들어섰다. 그 순간 그는 이 사람이 신문사에서 큰 인물이라는것을 직감하였다.

그는 정말 인상이 좋은 사람이였다. 넓은 이마는 속이 탁 트인 그의 시원한 마음을 보여주는듯싶었고 크고 정기도는 두눈은 멀리 앞을 보는 그의 예지를 드러내고있는듯싶었다. 그는 걸상까지 가리키며 어서 앉으라고 하는것이였다.

《네 이름이 뭐냐?》

이름까지 물어주는 그의 친절함에 비슈와나스는 너무도 감지덕지하여 다시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하였다.

《비슈와나스입니다.》

《비슈와나스?!》

소년의 이름을 새기려는듯 다시한번 반복하여 그의 이름을 외운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래 무슨 일인지 어서 들어보자꾸나.》

그러면서 그는 책상우의 무슨 문서들을 손에 들며 빨리 말하라는듯 비슈와나스를 쳐다보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말하기 시작하였다. 삼촌을 만났던 일이며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하고싶다는 자기의 속마음까지 다 터놓게 되였다.

비슈와나스의 자초지종을 인내력있게 들어준 그는 혼자소리로 말하였다.

《그렇다?!》

그러면서 그는 이 어린 소년이 기특한듯 비슈와나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너 어린 나이지만 포부가 있기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는 천천히 자기 책상우의 전화를 들고 누군가를 찾는것이였다. 당시 큰 도시였던 라호르에는 전신망과 통신망이 다 설치되여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는 이 신문사의 총경영자인 피. 엘. 쏜디였다.

총경영자는 역시 총경영자였다. 그는 비슈와나스의 행동거지에서 그가 지금은 애티를 채 벗지 못한 소년에 불과하지만 잘 키우면 쓸모있는 기자나 경영자가 될 미구의 름름한 모습을 엿보았던것이다.

이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우연이라 하기에는 만날 사람을 너무도 정확히 만났고 필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 아닌가.

아서라, 우연과 필연은 노력하는 사람앞에는 다같이 찾아오는 쌍둥이형제인지 누가 알랴.

비슈와나스는 눈물이 나왔다. 그 눈물은 삼촌에게서 배반당하여 나오는 분함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총경영자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였다.

피. 엘. 쏜디는 말하였다.

《너 우선 리포터가 되여 일해보아라.》

비슈와나스는 리포터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것이 뭘하는것인가고 물었다.

피. 엘. 쏜디는 말하기를 단번에 기자가 될수 없기때문에 그

밑에서 간단히 글을 써내는 보고자 비슷한것이 리포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리포터도 기자의 한 부류라고 하였다. 조수기자격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무엇이든지 좋았다. 그저 감격하기만 하였다.

이때 총경영자의 전화를 받은 보도부서 책임자가 들어섰다. 키가 꺽두룩하고 부시시한 머리를 한 그는 낯모를 아이와 총경영자를 엇갈아보며 이제 자기에게 어떤 임무가 떨어지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듯 하였다.

《당신 래일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일하게.》

《예?》

꺽다리부장은 무슨 아이인가 하는 뜻으로 비슈와나스를 다시 눈여겨보는것이였다.

《좀 도와주라구.》

피. 엘. 쏜디는 여전히 웃으며 말하였다.

《예.》

꺽다리부장은 더 물어볼념을 못하고 곰살궂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총경영자는 비슈와나스에게도 말하였다.

《비슈와나스, 너 래일부터 오후에는 이 부장선생에게 와서 지시받고 일해보아라.》

비슈와나스는 감격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몇번이고 인사를 한 비슈와나스는 부장이라고 불리운 그 사람을 따라나왔다. 부장의 방에서 그는 옆사람들과도 인사하였다. 부장은 매일 오후 2시이후에 와서 내가 하고싶은만큼 일하라고 하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비슈와나스는 또다시 돌아가며 인사를 꾸벅꾸벅하고 바람처럼 날개돋혀 《트리뷴》청사를 나섰다.

껑충껑충 뛰여가는 비슈와나스의 마음은 고무풍선마냥 둥둥 떴다.

《하느님》이시여! 오늘의 이 기회는 정녕코 당신이 나에게 주신것이 아니옵니까?!

모든것을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나도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 말한들 죄될것이 무엇이랴.

내가 2시까지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알량한 삼촌방에서 쫓기다싶이 나와 계단에서 그 어른과 맞부딪치지 않았더라면 일이 이렇게 훌륭하게 번져지지 않았으리라.

기숙사호실에 들어선 그는 동무들에게 환희에 넘쳐 말하였다.

《나 오늘 기자가 되였다!》

4. 사무친 실책

일생에 실책이 없는 사람이 있을가.

기계아닌 인간이기에 크든작든 누구에게나 실책은 있을진대 인생의 초엽에는 더욱 그러하리라.

비슈와나스에게도 그런적이 있었다.

리포터가 되여 돌아온 그 시간부터 비슈와나스는 새로운 기대감과 희망을 안고 하루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는 천년맞잡이였다.

비슈와나스의 눈앞에는 《트리뷴》청사만이 얼른거렸고 또한 그 정문을 버젓이 드나드는 기자, 자기의 모습이 보여오기도 했다. 《트리뷴》은 그때 인디아에서 3번째로 큰 신문이였다. 오늘도 이 신문은 100여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그 명예를 잃지 않고있다.

다음날 비슈와나스는 너무 기뻐 종내 수업에 한강의 빠지고 2시전에 《트리뷴》으로 갔다. 그러나 부서에 책임자는 없고 다른 사람이 부장은 4시에 온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1시반에 도착한 비슈와나스는 2시간반을 기다리자니 2년반이 걸리는것 같았다. 그는 계속 1초1초 시간만 들여다보며 안절부절하였다.

4시에 정말 키꺽다리부장이 들어왔다. 그는 기다리는 비슈와나스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너 내가 항상 여기에 붙어있다고 생각지 말아. 내 직업은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취재하는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갔다가 6시에 오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때에 같이 1시간반쯤 시내를 돌아다녀보자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자기도모르게 말이 나갔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다니면 안되겠습니까?》

그에게 마음의 여유가 더는 없었던것이다.

그러자 부장은 물었다.

《너 자전거 있니?》

《없습니다.》

비슈와나스의 대답을 들은 부장은 걸어다녀서는 많은것을 취재할수 없으니 자전거를 하나 사야 한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집은 호쉬아프르구역인데 이제 토요일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겠습니다.》

사심없는 소년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꺽다리부장은 제꺽 순응하였다.

《그럼 같이 나가보자.》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는 그날 오후 부장의 자전거를 함께 타고 시내를 돌았다. 자전거뒤자리에 비슈와나스가 앉아서 가기도 했고 또 그가 앞에서 자전거를 몰기도 했다. 처음으로 되는 취재실습이였다. 별것이 아니였다. 시내에서 벌어지는 모든것이 다 취재대상이 되였다. 어디에서 불이 일어났다든가 도적을 맞혔다든가 하는 모든것이 다… 그것이 보다 토핑 뉴스감이면 더 좋은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의 머리는 《새소식》취재에로 돌려지게 되였다.

천리길도 한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그는 부지런히 걸었다.

어느날 저녁 비슈와나스는 산보삼아 공원을 거닐고있다가 2명의 남자가 경찰에게 붙들려가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들은 공원에서 기생들과 놀다가 단속되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경찰서에까지 가서 구체적으로 취재하였다. 그리고는 밤 11시에 그 기사를 써가지고 신문사로 달려갔다. 독신이기때문에 구애되는것이 없었다.

그 기사는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났다. 밤새 벌어진 일이라 그 내용이 다른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늦은밤에도 남들의 눈길이 미처 가닿지 못하는 곳을 살피며 돌아갔다. 그는 반페지짜리 기사를 계속 써냈다. 하루가 지나면 사람들의 입에서 사그라지고말 그런 세태들의 취재로 시작된 그의 붓끝에서 그 어떤 력사적사변들과 인류의 소식들이 씌여지려는지 그때에는 그 자신도 알수 없었다.

10대의 그 시절에 자기가 살고있는 한 도시의 골목골목을 살살이 살피던 그 정열의 불길은 미구에 5대륙을 제 집처럼 돌고돌며 인류의 정의와 력사의 진리를 구가하는 활화산으로 잇닿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그때에는 그 누구도 가늠할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비슈와나스는 저녁늦게 호실에 들어서고있었다. 이때 동무들이 기다렸다는듯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것이였다.

《너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니? 오늘저녁 종로에서 2명의 남학생이 뻐스에 깔렸다. 죽었어!》

《정말이야?》

《정말 아니믄!》

프린슬리주의 고등학교동창들인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광경을 생동하게 말해주는것이였다. 알따브 후쎄인만은 보지 못하였는지 침묵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즉시 기사를 써가지고 신문사로 줄달음쳤다.

그때까지 앉아있던 보도부장은 진짜인가, 진짜인가 하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우리 학급동무들이 모두 보았기때문에 100프로 진짜라고 장담해나섰다.

그리하여 그 소식은 다음날 신문에 났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날오후 신문사에 가니 즉시 주필이 찾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처음으로 주필에게 불리워가게 되였다. 왜서인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는 조심히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섰다. 순간 그는 자기 몸에 와닿는 갱핏한 늙은이의 꽂

꼿한 눈살을 보며 무슨 변이 일어났음을 예감하였다.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주필이라는 그 어른은 대뜸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너 이 소식 어데서 들었니?》

주필은 신문을 들어 흔들며 웨치다싶이 말하는것이였다. 모든 말마디들이 극히 실무적이고 딱딱한 어조였다.

비슈와나스는 또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어처구니없는 말을 다 듣고난 주필은 더 상대가 안되는듯이 결론적으로 말하였다.

《너 작은 아이가 우리 신문의 권위를 한순간에 다 떨구었다. 너 이제부터는 이 청사에 들어오지 말아.》

순간 비슈와나스는 아찔하였다. 금시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왔다. 한동안 서있던 그는 울면서 귀를 잡고 빌다싶이 말하였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진짜로 들었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져가면 칭찬을 받을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

비슈와나스는 방에서 그냥 나가지 않고 용서를 빌었다. 그래도 주필은 말이 없었다. 주필은 성이 가라앉을상싶지 않았다.

정녕코 이대로는 돌아갈수 없는 비슈와나스였다. 그래서 그냥 빌고 사정하였다. 주필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소년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솔직한데가 있는듯 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있는듯도 했다. 그러나 한마디 용서로 훼손된 신문의 권위를 어찌 회복할수 있으랴.

이때 꺽다리보도부장이 조심히 들어왔다.

《잘못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한번 더 두고봅시다.》

그래도 말이 없는 주필.

그는 지금 이 신문의 명예를 생각하고있는듯싶었다. 한생을 이 신문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언제나 신문의 신빙성, 신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주필은 권위있고 아주 엄엄한 사람이였다.

보도부장이 다시한번 여쭈어서야 주필은 이마살을 찡그리며 마지못해 말하는듯싶었다.

《어서 나가보게.》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는 주필에게서 용서를 받은셈치고 겨우 그 방에서 나올수 있었다. 아마도 보도부장이 그 방에 들어서지 않았던들 비슈와나스는 주필의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지켜 서있었을것이였다.

아마도 정직한 잘못이 모두에게 동정을 불러일으킨듯싶었다. 비슈와나스는 보도부장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왔다. 그리고 주필에게도 아무의견이 없었다. 모든것이 다 자기의 잘못이였기때문이다. 하늘이 꺼질듯이 한숨을 쉬며 그는 《트리뷴》의 청사를 나섰다.

그날 시내에서는 물의가 일어났다. 학생들을 깔아놓은 뻐스도 없었으며 깔려죽은 학생들도 없었던것이다.

폭소가 터졌다.

기가 꺾이여 들어서는 비슈와나스를 보며 기숙사동무들은 죽어라고 웃어댔다. 그것은 비슈와나스를 놀려주느라고 그들이 일부러 꾸며낸것이였다.

동무들은 웃어댔지만 비슈와나스는 억이 막혔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때릴수도 탓할수도 없었다.

인생에 있어서 남의 웃음거리로 된다는것은 매우 모멸적인 일이였다.

동무들은 놀음이였지만 나는 놀음이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누굴 탓하랴. 내가 어리석었지, 참으로 어리석었지. 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내가 보지 못한것을 쓰다니…

자신이 그처럼 어리석은 존재라는것조차 모르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똑똑히 볼수 있으며 또 무슨 똑똑한 글을 써낼수 있단 말인가.

실책이였다.

이것은 일생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아니될 실책이였다.

그날의 그 실책은 비슈와나스의 가슴에 사무치게 새겨졌다. 사람은 실책으로부터 배우는것이 많아진다. 실책의 교훈은 경험보다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더욱 크다.

그래서 실책의 교훈은 호전의 시작으로도 되는것이다.

알따브 후쎄인도 웃으며 한마디 하였다.

《비슈, 앞으로는 자기가 본것만을 쓰라구.》

그는 이미 모든것을 알고있은듯 했다. 그래서 그는 동무들이 꾸며낸 말을 냅다 불어넣을 때 아무말도 없었는가. 하긴 내가 스스로 판별하여 행동하기를 바랐겠지.

알따브 후쎄인의 말은 옳았다.

자기가 보지 못하고 남의 말을 듣고 쓰면 순간에 이렇게 바보가 되는것이였다. 모든것은 깊이 생각해보고 확인해본것만을 믿어야 하는것이다.

알따브 후쎄인, 그는 생활의 계기마다 비슈와나스에게 옳은 충고를 준 참으로 고맙고 정직한 동무였다.

비슈와나스는 그이후 제도가 서로 다른 숱한 나라들을 돌고돌면서 오직 자기가 본것만을 말하였으며 자기가 체험한것만을 글로 썼다. 아마도 그것은 그날의 그 실책이 제정신을 잃고 살면 순간에 머저리가 된다는 생활의 교훈을 말없이 그의 가슴에 심어주었기때문이리라.

5. 만 회

사람이 한생을 걸어가는 길에 어찌 탄탄대로만 있으랴.

굴곡많은 그길에 넘어지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것이다. 일어서는자만이 자기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는것이다.

그 누가 말했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는 한번도 실패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는것이라고.

비슈와나스는 락심하지 않았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변명을 하지 말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라고 했다. 잘못은 수치스럽지만 잘못을 고치는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 잘못을 깊이있게 깨닫는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해졌다는것

을 말할뿐이다.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고치지 못할 과오란 없었다.

비슈와나스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기자신과 부단히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하느님》이 아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것은 인간이기때문이다. 《하느님》이 아니고 다름아닌 인간이기때문인것이다. 이 세상에 완성된 인간이 있을가. 그런 인간이 있다면 박물관에나 진렬되겠는지…

아, 나는 인간이다!

그는 이렇게 몸부림치며 모든것을 만회하려고 마음의 신들메를 든든히 조였다.

앞날을 내다볼 때만이 생활이 보다 아름다와질수 있는것이다. 그는 한밤을 지새우며 자기 마음을 시줄에 적어갔다.

새날이여, 어서 오라
뿌잇한 밤안개를 활 밀어내치며
내 인생의 수치스런 흔적도 멀리 내치며

어서 오라, 새날이여
기다려 잠못드는 마음
서둘러 너를 맞아 달려가리니

시간이여, 빨리 지나가라
쓰라린 회오의 모든것을 싣고
…

그는 시간을 마구 끌어당겨올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시간만이 이 수치를 가셔줄수 있는 가장 좋은 진정제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모멸과 수치는 시간의 흐름을 타고 가버리기마련이다.

모든 일은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쉬워진다.

토요일에 집에 간 그는 고향집대문에 새겨진 그 전설속의 두

루미를 새삼스레 찬찬히 뜯어보았다. 볼수록 아름다운 꿈속의 새였다. 그의 마음속의 새도 여전히 꿈속의 하늘을 날고있었다.

언제인가는 나에게도 저 하늘을 날을 날개가 돋히리라. 하지만 그에게 당장 필요한것은 땅우를 달릴 자전거였다.

비슈와나스는 아버지에게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의아한듯 머리를 기우뚱거리더니 미안하지만 자전거는 못사주겠다고 잘라 말하였다. 그것은 자전거가 있으면 공부는 하지 않고 처녀들 뒤꽁무니나 따라다니고 나쁜 아이들과 장난할수 있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이미 지은 죄가 있기때문에 아버지가 십분 그럴만도 한 일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 나 자전거가 꼭 필요해서 그러는데 30루삐만 주세요.》

두르가데비는 아들의 말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는 비슈와나스에게 40루삐를 주면서 자전거가 왜 필요한가는 묻지 않고 말하는것이였다.

《언제나 제시간에 깨여나고 제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라. 그리고 옆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 말은 두르가데비가 자식들에게 늘 하는 당부였다. 비슈와나스의 형제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이 가르침이 뇌리에 새겨져 언제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것이다.

일요일 오후에 비슈와나스는 뻐스를 타고 라호르로 돌아왔다. 그는 다음날 오후에는 벌써 새 자전거를 타고 거리에 나섰다.

운동가형의 이 쾌남아는 웃으면서 자전거를 달렸다.

머리속에서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맴돌았다.

비슈! 너는 정녕 어디로 가려니?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있니?

아직은 석연치 않았다. 아직은 자기의 인생길이 어디로 뻗어있는지 자기자신도 딱히 찍어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것은 지금 자기가 가고있는 이길이 전설속의 그 두루미가 훨훨 날아가고있는 그 세계의 한 끝에 이어져있다는 그것이였다. 그

는 그렇게만 믿고싶었다. 스무살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자기의 인생을 락관하였다.

신심과 락관, 그것이 중요한것이였다. 선택한 인생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주저앉는 사람은 바로 그 신심과 락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코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두발을 힘차게 놀리자 자전거바퀴가 둥둥 떠서 하늘을 나는듯싶었다. 사슬은 사르륵사르륵 소리를 내며 기운차게 돌아간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재판소에 당도하였다. 오후 4시부터 대학생들을 취급하는 재판이 있다는 정보를 이미 그는 받았던것이다.

재판정은 시작전부터 군중들과 가족들 그리고 기자들로 붐비였다. 시내의 다른 신문사의 면목있는 기자들이 비슈와나스를 알아보고 한마디씩 하였다.

《너 전번에 거짓말한 기자로구나.》

《너의 전번기사는 정말 대파문이였어.》

그들은 하나같이 비슈와나스를 놀리며 너 먼저 기사를 쓰면 안된다느니 너 이번에는 주의하라느니 하면서 첫 보도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는것이였다. 거짓보도를 한것으로 하여 그 이름이 인차 알려졌던 비슈와나스였으니 그런 말을 들을만도 하였다.

드디여 재판이 시작되였다.

재판은 인디아땅을 가로타고앉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항의운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취급하는 소송사건이였다.

재판 전과정을 취재하면서 비슈와나스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 나라의 주권을 요구한것이 왜 죄로 된단 말인가?

당시 나라의 곳곳에서는 인디아의 자치를 획득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불복종운동들이 벌어졌는데 정부에서는 그 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참가자들도 모두 구속하고있었던것이다.

나라의 독립운동자로 알려진 모한다스 카람챤드 간디(1869—1948. 마하트마(위대한 넋이라는 뜻.)간디라고 불리웠다.)를 비

롯한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또한 감옥신세를 졌던가.

사회정치적문제가 있었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차례진 인권이 아닌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 주권의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누가 구속한단 말인가?

인디아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 나라의 주권을 좌우지한단 말인가?

이 순간 왜서인지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는 불쑥 이국인들에게 짓밟힌 땅, 자기 조국 인디아의 신음소리가 절절히 울려오는것이였다.

무한한 재부도 당신의것이 못되옵니다
참을성있고 수심어린 나의 땅 어머니시여
…
당신은 젖가슴으로 우리의 생명을 길렀지마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여 당신의 눈은 언제나 깨여
  있습니다
다년간 빛과 노래로 일했어도
당신은 하늘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하늘 그리는 슬픔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아름다운것엔 눈물의 안개가 덮였습니다
…

타고르(1861－1941)의 이 시가 이 순간처럼 자기의 가슴을 울린적은 없었다. 이 구절들에는 어머니조국으로서 자기의 수많은 아들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하는 안타까움이 비껴있었다.

20세기 전반기 인디아의 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 사람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시들을 그는 일찌기 부모들과 외할아버지에게서 주입받았었다.

인디아는 세계적문호인 타고르를 낳은 나라로 상징되기도 하였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타고르는 생애의 전기간에 50여권의 시집과 10여권의 장편, 중편소설을 비롯하여 많은 희곡과 정론들

을 썼으며 자기의 창작을 통하여 인디아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강점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에 대한 지향을 표시한 진보적인 작가였다.

중학시절부터 즐겨외우던 《나의 땅 어머니시여》가 그때에는 다는 몰랐던 깊이를 깨우치며 자기 조국의 주권을 위한 운동에 나섰다는 리유로 애매하게 재판정에 서게 된 대학생들을 보게 되는 이 마당에서 더욱 절절히 그의 가슴속에서 울리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다만 피고들이 같은 대학생이라는 심정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였다. 그것은 아픔과 눈물에 젖은 이 땅을 통채로 안고 몸부림치는 이 나라의 한 아들로서, 국민으로서 웨치는 심장의 절규였다.

타고르는 자기의 시들을 통하여 마치 비슈와나스와 한이웃에 사는듯이 이야기하였다.

비슈와나스는 그 뜻을 깊이깊이 다시 음미해보며 조국의 이 안타까운 소원은 조국이 낳은 참된 아들들이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것이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의 터침인듯 시는 그냥 그의 가슴속에서 울리고있었다.

…
내 노래를 당신의 말없는 마음속에 넣어드리고
내 사랑을 당신의 사랑속에 부어넣으렵니다
내 부지런한 일솜씨로 당신을 떠받들렵니다
나는 당신의 부드러운 얼굴 보았습니다
수심에 싸인 당신의 흙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의 땅 어머니시여!

그렇다. 어머니조국의 아들된 본분을 다하려면 조국을 빛내이는 애국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애국의 길을 걸으려면 나는 어떤 사상을 따라야 하는가?

아직은 알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필봉이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하

는 그것이였다.

자기는 고작해야 어디에서 불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든가 하는것따위밖에 생각 못한 리포터에 불과하였던것이다. 그런 기사는 신문의 마지막공백을 메꾸기 위한데나 필요한것이였다.

드디여 훌렁한 법관복을 입고 검은 비로도법관모를 쓴 재판장이 꼿꼿한 자세로 판결을 내리는 엄엄한 목소리가 들리여왔다.

《본재판은 영국정부를 반대하여 항의한 12명의 대학생들에게 2년간의 징역을 선포한다.》

그러자 사람들속에서는 웅성웅성하는 소요가 일어났고 기자들은 시작전보다 더 붐비며 뿔뿔이 사라져갔다. 저마다 빨리 이 재판소식을 자기 신문에 내려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이 재판이 좀 어처구니없이 생각되였다. 왜서인지 법정의 틀스럽고 랭랭한 엄격성이 위선과 허위에 가득차보이는 것이였다.

남의 자유를 짓밟아놓은 여기에 그 무슨 민주주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굴리며 그도 재판정을 나섰다. 많은 기자들이 마차를 타고 저들의 본사로 달려갔다. 그 마차는 외말이 끄는것이였다. 당시 인디아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마차들이 많았다. 《트리뷴》에도 그런 마차들이 있었는데 비슈와나스에게 차례질리가 만무하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자전거만으로도 족했다. 오히려 자전거가 더 편리할 때가 많은듯싶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전거를 달려 《트리뷴》으로 왔다.

재판정에서 취재하면서 신속히 써온 비슈와나스의 글을 보며 보도부장은 믿기 어려운듯 몇번이나 이것이 진짜인가고 물어보았다. 비슈와나스는 그때마다 이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본것이고 또 내 귀로 직접 들은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래도 꺽다리부장은 믿지 않았다. 그는 다른 신문사에 전화를 해보고서야 《네가 진짜를 썼구나.》 하며 믿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 기사는 다음날 신문에 나갔다.

권위있고 엄엄한 그 주필이 아침 6시에 신문을 읽다가 비슈와나스의 이름을 보고는 실망하였다. 이녀석이 또 우리 신문을 망신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앞섰던것이다.

주필은 다른 신문들에 난 그 재판소식들을 보고서야 믿게 되였다.

주필은 물망에 올랐던 이름이라 비슈와나스의 기사를 세심히 보았다. 기사를 다 읽고난 주필은 한순간 얼떠름해졌다.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 아이의 기사에 예상외로 감정이 맥박치고있었던것이다. 그 감정은 숨결이 뛰는 사내의 감정이였으며 도탄에 빠진 민족의 감정이였다. 그 기사에는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자료만이 아닌 필자의 숨결, 필자의 뚜렷한 얼굴이 엿보였던것이다.

다른 신문들에 난 같은 소식의 기사들은 사건전말을 전달하는데 그쳤지만 비슈와나스의 기사는 그렇지 않았다. 다른 기사들보다 길게 쓴 비슈와나스의 글에는 사건전말이 상세히 형상적으로 씌여졌을뿐아니라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고있는것이였다. 물론 그것이 적극적이고 분석적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나라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하나의 작은 사건에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문제를 도출해낸것은 어린 그에게서 볼수 있는 귀중한 싹인것이다.

이리하여 주필은 두번째로 비슈와나스를 찾게 되였다.

비슈와나스가 주필의 방에 들어서자 그는 일어서서 마주오며 포옹해주는것이였다.

《이번에는 잘 썼다. 그렇게 사실에 기초한 기사만을 써야 한다.》

주필은 자기의 기사처럼 기뻐하며 비슈와나스의 손을 잡아주었다.

비슈와나스의 마음은 붕— 떴다.

그날은 참으로 기쁜 날이였다. 자기도 글을 쓸수 있다는 신심을 가진 잊지 못할 날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그는 처음으로 본 재판정의 광경에서 자극을 받고 법률에 대한 책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치경제학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리의 관계이기때문에 정치경제학이라고 붙여쓰는것이 아니겠는가.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면서 그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이있는 리해도 하게 되였다.

그는 점차적으로 자기 나라 력사와 세계력사 그리고 사회학, 종교학, 철학 등에도 조예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비슈와나스는 10대에 벌써 많은것을 터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알따브 후쎄인과는 항시 토론했다. 그는 성장하면서 점차 모든 사물현상을 변증법적유물론의 견지에서 고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습관되여갔다.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줄 아는 알따브 후쎄인은 비슈와나스에게 언제나 좋은 충고를 주는 진실한 벗이였다. 그들은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 과목의 선생들을 찾아가 묻기도 하고 론의하기도 하였다.

모든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자.

이것이 비슈와나스의 마음속생각이였다.

과외시간에는 여전히 자전거를 달리였다. 가족이 있는 기자들은 생활에 파묻힐 때도 있었지만 비슈와나스에게는 구애되는것이 없었다. 그는 이런저런 기사들을 계속 써냈다.

바드리 나트 취바도 《트리뷴》에 자주 실리는 비슈와나스의 이름을 보고있었다.

어느날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말하였다.

《〈트리뷴〉에 너하고 이름같은 사람이 계속 기사를 써내고 있다. 너도 이 사람처럼 일해야 한다.》

비슈와나스는 아무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것이 자기라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혹시 아버지가 대학생이라는 아이가 공부를 떠나 딴일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는지 해서였다.

어느날 아침 기도모임이 끝났을 때였다.

안경쟁이 말쑥한 학장이 예나 다름없이 학생들앞에 나섰다. 령

리한 그의 두눈은 언제나 코안경뒤에서 반짝이고있었다.

《비슈와나스가 누구인가?》

이렇게 소리치며 학장은 학생들의 대렬을 향해 좌우를 둘러보았다.

대렬한가운데 서있던 비슈와나스는 흠칫 놀랐다. 그리고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이때 재차 웨치는 학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비슈와나스, 어데 있는가? 빨리 내앞으로 나와!》

틀림없었다. 학장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있는것이였다. 순간 그는 내가 또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게로구나 하는 생각이 앞섰다. 그렇지 않다면야 왜 갑자기 나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학장은 지금 천벌을 내리려고 하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학생들틈을 비집고나와 머뭇거리며 학장앞에 가 고개를 숙이고 섰다. 비슈와나스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며 학장은 전교학생들이 다 듣도록 큰소리로 물었다.

《네가　비슈와나스인가？》

《예！》

비슈와나스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학장은 사이를 두지 않고 또 물어보았다.

《너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인가?》

《예!》

《말해봐,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

《공부할것을 원하는가? 일할것을 원하는가?》

순간 비슈와나스는 학장이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알고 묻는다는것을 직감하였다.

나는 《하느님》이 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리용했을뿐인데…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것으로 되는것인가.

학장앞에 차렷하고 선 비슈와나스는 《하느님》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나의 임무는 공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여가시

간에 기자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은… 졸업후 기자활동을 하려고 하기때문입니다. 나는 돈을 받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비슈와나스의 말을 다 듣고난 학장은 짐짓 엄엄한 인상을 지었다.

《지금 당장 이자리에서 너의 결심을 말해봐. 공부를 하겠는가? 일을 하겠는가?》

《첫째가는 과업은 공부입니다. 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장선생님이 신문사에 가지 말라면 이제부터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학장은 태도를 달리하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아니다. 너 공부도 하면서 글을 계속 써라. 이 나라에서도 큰 신문인 〈트리뷴〉에 17살난 우리 대학 학생의 글이 계속 실리는것은 우리 대학의 자랑으로 된다.

너의 동료학생들에게 네가 지금 어떻게 기자활동을 하고있는가를 말해주라. 비슈와나스, 너처럼 되라고 말이다.》

뜻밖이였다. 그러니 내가 지금 천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칭찬을 받고있단 말인가.

학장은 그냥 지켜서있었다. 빨리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하라는 태도였다.

비슈와나스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무슨 말이든 해야 하였다.

불쑥 튀여나온 말은 한마디였다.

《나는 그저 래일을 당겨오려는 그 한생각뿐입니다.》

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그의 정신, 그의 생활, 그가 원하는 모든것이 다 비껴있었다.

학장이 먼저 박수를 쳐주었다. 비슈와나스는 전교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렇다. 래일을 당겨오려는 그 욕망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안아오는 비결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옛날부터 일을 쫓아가야지 일에 쫓기우지 말라고 하였다. 참으로 오늘의 하루는 래일의 열흘

맞잡이인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비슈와나스는 온 대학이 다 아는 《기자》가 되였다.

알따브 후쎄인은 진정으로 비슈와나스를 축하해주었다.

《너는 꼭 훌륭한 기자가 되여라.》

《너도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서로가 성공의 그날을 위해 힘껏 노력하자고 약속하였다.

포부! 그것은 곧 삶이며 열정이며 미래이다.

누구든 때를 놓치지 말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6. 오해에 앞서 리해하라

오해에 앞서 리해하라.

생활에서 누구나 이 말을 지킨다면 생활은 보다 화목해질것이며 더욱더 활기를 띨것이다.

누구나 이 말을 할수는 있어도 누구나 이 말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제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제나름의 길을 가고있기때문이다.

리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여 생활에선 얼마나 왕왕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있는것인가. 그래서 인간생활이란 갈래많고 복잡다단하다고 하는것인지.

하지만 이 말을 좌우명처럼 늘 외우며 자식들을 키우고 내세워준 어머니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두르가데비였다.

두르가데비는 맏아들이 하는 일을 어렴풋이 가늠하고있었다. 《트리뷴》에 자주 실리는 그 이름의 기사에 류별나게 흐르는 아들의 체취를 그는 감수하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들은 보통 자식의 취미와 기호에 대해 잘 알고있다. 자식의 일거일동을 주의깊게 살피고 자식의 앞길에 성공만이 있기를 빌고비는것이 어머니들이다.

어머니들의 가슴에는 자식의 숨결이 흐르고있다. 하물며 젖먹여 키웠을뿐아니라 소학교교육까지 직접 한 두르가데비에게 있어서야…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혹 어떤 사람은 학생이 공부안하고 돈벌이를 한다고 잘못 생각할수도 있기때문이다.

자제력이 강한 성격인 두르가데비는 마음속으로 맏자식이 참으로 잘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있었으며 언젠가는 꼭 그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안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있었을뿐이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주말에 집에 왔던 비슈와나스는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학장선생이 한번 만나자고 한다고 하였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너 무엇을 잘못했니?》

《잘못한것은 없습니다. 학장선생이 몇명의 학생들의 학부형들을 부르는데 나도 그중에 속했습니다. 다음주에 좀 만나주십시오.》

바드리 나트 취바는 비슈와나스에게 아무래도 너 뭘 잘못한것 같다며 기분이 좋지 않아했다.

자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바드리 나트 취바는 다음날 지체없이 대학에 찾아왔다.

학장과 비슈와나스사이에는 이미 약속이 돼있었다.

며칠전에 학장이 네가 하는 일을 부모들도 알고있는가고 물었을때 비슈와나스는 모른다고 하면서 학장선생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학장은 네가 직접 말하라고 하였지만 비슈와나스는 선생님이 말해달라고 재삼 부탁하였다. 그래서 학장이 그럼 아버지를 나에게 보내라고 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바드리 나트 취바는 대학에 오게 되였던것이다.

학장으로부터 맏자식의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에 대하여 다 듣고난 바드리 나트 취바는 감동했다.

학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런 학생을 가지고있는것을 긍지로 생각합니다.》

학장은 비슈와나스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보라는것이였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처음으로 아들을 인정하게 되였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물었다.

《너 왜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니?》

비슈와나스는 솔직하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사주었기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성낼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그자리에서 즉시 40루삐를 꺼내주며 말하였다.

《이제 당장 가서 제일 좋은 자전거를 사거라.》

바드리 나트 취바는 그때까지 자기 자식이 자전거가 있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부자간의 말을 듣고있던 학장이 서둘러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대학에서 자전거를 사주겠습니다.》

학장도 그때까지 자기의 학생이 자전거가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자전거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돈을 주어서 샀습니다.》

학장은 탄복하였다.

《너의 어머닌 정말 괜찮은 어머니시구나!》

그 일이 있은 후 비비마을에서는 경사가 났다.

학장을 만나고 돌아간 바드리 나트 취바가 《트리뷴》에 자주 나는 그 이름이 다름아닌 내 아들 비슈라고 샤르마가문에 소문을 냈던것이다. 그 소문은 가문을 벗어나 온 마을에 퍼졌다.

주말에 집에 간 비슈와나스는 영웅으로 떠받들리웠다.

사람들은 신문에 자주 나는 그 이름이 취바박사의 아들이래, 샤르마가문의 장손이래 하면서 칭찬하였다.

하지만 비슈와나스에게는 그 말들이 그리 달갑지 않게 들리였다. 그는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은 아직 없다고 생각되였다. 보라, 아직까지 자기는 이름에 앞서 누구의 아들 혹은 어느 가문의 몇째로 통용되고있는것이 아닌가.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없을 때 선친의 이름으로 혹은 가문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것이다.

가문의 이름이나 부모의 공로가 결코 자식을 구원하지는 못하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싶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그 이름이 사회에 빛나는것은 아니다. 선친들이 지어준 그 이름을 사회에 다 바칠 때 다시말하여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할 때,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될 때 그 이름은 비로소 사람들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며 오직 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그렇게 살고싶었다.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이름으로 살고싶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이 떳떳이 불리우게 살고싶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지만 래일은 자기의 부모가 누구의 부모라고 자랑할만큼 큰일을 하고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욕망뿐이였다.

샤르마가문에서는 그를 축하하는 모임도 열었다. 큰할아버지 라쟈만 다스를 비롯하여 모두가 그를 대견해하였다.

그날저녁 두르가데비는 말하였다.

《맏이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자기의 빈곳을 더 찾아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할수록 오해에 앞서 리해하여라. 그래야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수 있느니라.》

어머니의 그 말은 두고두고 비슈와나스의 뇌리에 새겨져 걸음마다에 울리였다.

그는 칭찬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누구에 대하여 오해가 앞설 때에 항상 어머니의 이 말을 되새기며 자신을 다잡군 하였다.

부모는 가정의 거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거든 가풍을 보라는 말이 있는것인지도 모른다.

교양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다.

어머니의 그 지성적인 교양이 없었다면 어려서부터 남보다 많이 알고 또 무엇이든 많다는 우월감으로 가득차있던 그가 참인간의 자세에서 탈선되여 어떤 길을 걸었을지 누가 알랴. 하지만 그는 부호의 아들답게, 아니면 부호의 아들답지 않게 원숙하고 세련된 모

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지지자들이 많아지기마련이다. 그는 더 많은 동료들과 선생들 그리고 기자들과 휩쓸리면서 자기도모르게 애티를 가셔갔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갔다.

당시 인디아에서는 분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있었다. 그것은 종족분쟁, 교리분쟁이였다. 그 분쟁은 식민주의자들의 계책에 의해 더욱 발화되고있었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교파간의 이 분쟁을 리용하여 종내는 나라를 분렬시켰던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나라가 분렬되기 직전이였다.

감옥에서 안해를 잃고 옥고를 치르고나온 마하트마 간디가 종교적반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슬람교도들이 민족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모하메드 알리 지나와 만나 회담하였으나 그 회담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의 사이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기만 하였다.

각 신문들은 이때의 상황을 부지런히 보도하고있었다.

《트리뷴》도 례외가 아니였고 비슈와나스도 례외가 아니였다.

이때의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 《트리뷴》과 비슈와나스가 다같이 일약 명성을 떨치는 계기가 있었다.

그날은 어느 일요일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알따브 후쎄인과 함께 거리에 나왔다가 라호르의 한 공설운동장에서 바로 그 모하메드 알리 지나가 하는 연설을 듣게 되였다.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그의 두리에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있었다. 1시간이 넘는 그의 연설내용은 이슬람교도들은 하나의 이슬람교국가를 세워야 한다는것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군중은 와— 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지나가 우르두어로 연설하면 힌두교도들은 영어로 하라고 고아대고 그래서 영어로 연설하면 이슬람교도들이 또 우르두어로 하라고 고아대군 하였다.

우르두란 말은 복합, 혼합이란 뜻으로서 우르두어는 이슬람교도들이 쓰는 페르샤어와 인디아의 힌두교도들이 쓰는 서부힌두어

의 한 방언이 혼합되여 이루어진 특수한 언어이다.

오늘 우르두어는 파키스탄의 국가공용어이며 인디아 이슬람교도들이 쓰는 언어로 되고있다.

군중은 점점 더 소란을 피웠고 지나는 신경질적으로 내가 영어로 하면 우르두어로 하라고 하고 내가 우르두어로 하면 영어로 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것인가 하고 웨쳐댔다.

나중에는 군중속에서도 파가 생겨 서로 엉켜돌아가며 싸움이 붙었다.

우연히 이슬람교도들뒤에 서있던 비슈와나스에게 힌두교도들이 와 덮쳐들었다. 이때 알따브가 날래게 그들을 제지시키며 이 사람은 당신들과 같은 힌두교도라고 말하여 싸움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였다. 물론 이때의 알따브는 힌두교도로 보였을것이였다.

다음에는 이슬람교도들이 알따브를 힌두교도로 보고 그에게 덤벼들었다. 이때에는 비슈와나스가 막아서서 이들을 또 저지시켰다. 이때 이슬람교도들의 눈에는 비슈와나스가 저들의 교도로 보였을것이다.

비슈와나스와 알따브는 서로가 이렇게 막아주며 겨우 이 란무장을 빠져나올수가 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생각하였다.

왜 종교가 서로 싸우는가? 서로 자기 교를 따르면 그만이지 싸울 근거야 없지 않은가?

동무관계만 봐도 그렇다. 서로 다른 교파인 알따브와 자기는 둘도 없이 친한 사이인데…

교리를 믿는것자체가 자기 힘을 믿지 못하기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인류는 오랜 세월 헤매이고있었다.

각자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로부터 교리도 맹목적으로 따르고있으며 또한 서로 싸움을 벌리고있는것이였다.

다음날 각 신문에는 지나의 연설내용이 동시에 실리였다.

다른 신문들에는 그의 연설내용만이 보도되였지만 《트리뷴》에 실린 기사는 그의 연설내용만이 아니였다.

비슈와나스는 그가 연설하던 운동장의 소요와 군중의 여론까지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중요하게는 한 나라안에서의 분쟁이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인가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가했다.

또한 그는 다민족국가는 분쟁의 길이 아니라 하나로 뭉치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호소와 함께 그 리치에 대하여 밝혔다.

비슈와나스의 글들에 주목하고있던 피. 엘. 쏜디가 이 기사를 읽고 매우 만족해하였다. 복도에서 부딪쳤던 그 애어린 청년의 얼굴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숱진 눈섭밑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던 그 눈빛, 그의 기상을 말해주듯 미간에서부터 뻗어내려온 코잔등…

나이는 어리지만 록록치 않아보이던 모습이였다. 그가 한해사이에 이렇게까지 성장하다니…

기대되는 인물이였다.

피. 엘. 쏜디는 흐뭇한 마음으로 비슈와나스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는 신문사의 총경영자의 방에 두번째로 들어가게 되였다.

첫번째가 우연이라면 두번째는 필연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 아니다. 정녕코 우연과 필연은 노력하는 사람앞에는 다같이 찾아오는 쌍둥이형제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사이 키도 컸고 정신도 커진 비슈와나스의 손을 잡아주며 피. 엘. 쏜디는 말하였다.

《비슈와나스, 너 훌륭한 기자가 되였어!》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며 칭찬해주는 그가 고마왔다.

누구든 한번 만나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있다면 그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될것이다. 항시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있던 비슈와나스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이렇게 일부러 만나주며 고무해주니 황송함이 이를데 없었다.

비슈와나스는 무릎을 꿇고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총경영자의 발을 다치며 최대의 례를 표하였다.

《고맙습니다. 다 사장님의 덕분입니다.》

피. 엘. 쏜디는 언제나와 같이 좋은 인상을 짓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래 원고료는 얼마를 받았느냐?》

《저는 원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피. 엘. 쏜디는 그게 무슨 일인가 하는 눈빛을 지으며 전화로 주필을 찾아 묻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에게 왜 원고료를 주지 않는가?》

총경영자의 전화를 받은 주필도 뜻밖이라는듯 놀라와하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나도 모르고있었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다?!》

주필도 편집부에서 일정한 원고료를 주고있으리라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피. 엘. 쏜디는 그자리에서 주필에게 이번 기사의 원고액을 정해주는것이였다.

《그럼 이렇게 합세. 75루삐로!》

전화기를 놓은 피. 엘. 쏜디는 비슈와나스에게 말하였다.

《이번 기사의 원고료는 75루삐다.》

비슈와나스는 서둘러 말하였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배우기 위해…》

《그렇다?!》

피. 엘. 쏜디는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기를 기대한다며 비슈와나스를 문까지 배웅해주었다.

다음날 비슈와나스는 75루삐의 원고료를 탔다. 그때로서는 높은 급의 원고료였다.

원고료를 받아든 비슈와나스는 눈물이 났다.

여러건의 글들을 발표했지만 원고료를 받기는 일생에 처음이였다. 그것은 사회를 위해 그 무엇을 기여했다는 산증거와도 같은 것이였다. 소년시절의 그런 체험은 인간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가장 고귀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비슈와나스는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였다.

그 원고료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성실한 노력의 산물이였다. 동시에 그의 가슴속에는 자기도 자기 노력으로 자립할수 있다는 생

각이 들었다.

어이 그런 돈을 내가 쓸수 있으랴.

비슈와나스는 그 원고료를 들고 울면서 친근한 피. 엘. 쏜디를 찾아갔다.

《사장선생님! 당신이 받아주어 제가 첫 원고료를 탔습니다. 소박하나마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피. 엘. 쏜디가 그것을 받을리 없었다.

《아니다. 네가 일한것은 네가 가져야 한다.》

피. 엘. 쏜디는 그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것보다 더 기뻐하였다. 도덕은 돈으로 살수도 계산할수도 없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눈물을 흘리며 주필과 편집부장을 차례차례 찾아갔지만 그들 역시 그것을 받을리 없었다.

그다음.

비슈와나스의 머리속에는 불쑥 아르. 아르. 샤르마를 보란듯이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깨를 으쓱이며 버젓이 그를 찾아갔다.

《당신은 우리 친척이지만 나를 거절하였습니다. 나도 이제는 당신 비슷하게 돈을 탔습니다.》

비슈와나스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깍듯이 인사하고 돌아서 나왔다. 그때 아르. 아르. 샤르마의 로임이 100루삐였으니 비슈와나스가 그렇게 말할만도 한것이였다.

아르. 아르. 샤르마는 비슈와나스가 《트리뷴》에 드나드는것을 알고있었다. 드문히 구내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비슈와나스는 머리를 돌리군 하였던것이다.

그러던 그가 돌연히 그 삼촌을 찾아가 자기의 존재가치를 선포한것이였다. 역시 비슈와나스였다.

이처럼 그는 소년시절부터 자존심이 보통 아니였다.

그다음 그는 학장을 찾아갔다. 첫 원고료를 학교에 기증하는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학장선생님! 대학에서 저를 도와주어서 첫 원고료를 탔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학에 기증합니다.》

안경쟁이학장은 매우 좋아하였다. 그도 비슈와나스의 기사들을 주의깊게 보고있었다. 분쟁문제를 다룬 비슈와나스의 기사가 영국인인 그의 비위에 좀 거슬렸는지는 알수 없는 일이나 그에게는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다. 하긴 웃으며 보호해주며 그보다 더 큰 리윤을 얻을줄 아는 영국인들이 설사 비위에 좀 거슬렸다 해도 내색을 할리 만무한것이였다. 그는 《알겠다.》 하며 그것을 쾌히 받아들이는것이였다.

다음날 아침 기도시간에 학장은 또다시 비슈와나스를 대렬앞에 내세우고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첫 원고료 기증을 나는 접수한다, 그러나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고료를 돌려주는것이였다.

《이 얼마나 기특한 소행입니까?! 이것은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비슈와나스는 이번에도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맙게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례의를 차린 비슈와나스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감을 느끼였다. 참으로 례의는 사람을 신성하게 만든다.

이렇듯 첫 원고료는 돌고돌아서 두르가데비의 앞에 오게 되였다. 주말에 집에 간 비슈와나스는 첫 원고료를 어머니에게 드렸던것이다.

두르가데비는 매우 기뻐하였다.

돈보다도 자기 아들이 이만한 원고료를 탔다는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부유한 가정이지만 아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가치를 가졌다는 그것이 더없이 기뻤다. 그래서 두르가데비는 그 돈으로 연회를 차리고 마을사람들을 초청하였다. 그자리에서 두르가데비는 아들을 자랑하였다.

물론이다. 자식이 구실 못하면 더없는 창피를 느끼며 어디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자식이 구실하면 더없는 긍지를 느끼며 자랑하고 싶어하는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다.

갑자기 비슈와나스는 사춘기라는 애어린 존재에서 유력한 어른의 존재로 변모되였다.

이렇게 그는 10대에 벌써 관찰과 분석이 정확하고 필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으며 기자생활의 문턱에 들어섰다.

끝없는 창공을 향하여
찬란한 광명을 향하여
자유의 공기를 향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자유의 깃 펼친 새야
날으라 우주의 한끝까지